

저자 樋口淳叟

국역 오준호

해제 오준호

국역 韓客治驗



ISBN 978-89-5970-492-7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간기 刊記	1.1
서언 緒言	1.2
한객치험서 韓客治驗序	1.2.1
게이슈(藝州) 가마가리(鎌刈)에서 보내온 서한. 自藝州鎌刈贈來書翰。	
자서 自序	1.2.3 1.2.2
치험 治驗	1.3
수읍하관 김복재 隨扈下官, 金福才	1.3.1
† 관련처방	1.3.1.1
부사집선의 선장 정흥방 副使卜舡將, 鄭興邦	1.3.2
† 관련처방	1.3.2.1
정사기선의 중관 김치영 正使騎舡中官, 金致永	1.3.3

† 관련처방	1.3.3.1
종사선의 관인 김수창 從事舡官人, 金守昌	1.3.4
† 관련처방	1.3.4.1
정사기선의 관인 조필선 正使騎舡官人, 趙必善	1.3.5
† 관련처방	1.3.5.1
부사기선의 관인 서중정 副使騎舡官人, 徐重鼎	1.3.6
† 관련처방	1.3.6.1
부사짐선의 중관 유상필 副使卜舡中官, 劉尙弼	1.3.7
† 관련처방	1.3.7.1
종사선의 관인 김한걸과 박이평 從事舡官人, 金漢傑、朴以平	1.3.8
† 관련처방	1.3.8.1
종사선의 하관 김천운 從事舡下官, 金千云	1.3.9
† 관련처방	1.3.9.1
정사기선의 중관 김재재 正使騎舡中官, 金再齋	1.3.10
† 관련처방	1.3.10.1
부사짐섬의 중관 곽통기 副使卜舡中官, 郭通起	1.3.11

† 관련처방	1.3.11.1
중사기선의 관인 김순평 從事騎舡官人, 金順平	1.3.12
정사기선의 선장 강홍진 騎舡舡將, 姜弘晉	1.3.13
중사짐섬의 관인 이청만 從事卜舡官人, 李靑萬	1.3.14
문답 疑問	1.4
서한 書翰	1.4.1
답서 答書	1.4.2
필담 筆談	1.4.3
 해제·출판	
해제	2.1
부록1 : 용어설명	2.2
부록2 : 도록	2.3
참고 문헌	2.4
일러두기	2.5
출판사항	2.6

刊記 간기

韓客治驗。浪華，樋口淳叟著。寬延二巳五月，藏版。

한객치험. 나니와(浪華)¹ 히구치 준소(樋口淳叟) 지음. 간엔(寬延) 2년(기사, 1749) 5월 장판(藏版).

1. 나니와(浪華) : 오사카(大阪) 부근의 옛지명 ←

緒言 서언



韓客治驗序

한객치험서

凡考地勢者，治病之一端也，所謂異法方宜是也，樋口氏，奧之津輕之人也，壯年行業於攝之浪華而有功矣。蓋致考于地勢者乎。延享戊辰之夏，韓土通信使來聘彼東觀之際，留在攝之韓人有罹危篤之病者，依官命治之，雖症危於累卵，用藥而安矣。嗣韓客有病者，悉求治矣。桑韓之人，雖起居飲食不同，而受病之因內傷外感無以大異矣。樋口氏善考其異同，施治悉如桴鼓之應。信使自東都歸，感其治功，以幣謝之，非但樋口氏之譽，卽本邦醫家之名聞也。故以其治驗，欲及梓，就〔予〕請序，〔予〕曰，幸宦人有所送之謝辭，以此題于卷首云。

땅의 풍토를 고려하는 일은 병 치료의 한 단계이니 《내경(內經)》에서 "지역에 따라 치법을 달리해야 한다(異法方宜)."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히구치(樋口)씨는 오쿠(奥)의 츠가루(津輕) 사람으로, 성년이 된 뒤로 셋슈(攝州)의 나니와(浪華)에서 의업(醫業)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아마 이 때부터 땅의 풍토를 고려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엔쿄(延享) 무진년(1748) 여름 조선통신사가 사행을 와서 토오토(東都, 에도江戶)에서 알현할 때 셋슈에 남아있던 조선인 중에 위독한 병에 걸려 이가 있어 관명(官命)을 받고 그들을 치료하였는데, 비록 병

증이 위태로웠으나 약을 쓴 뒤 안정되었다. 그 후로 병이 있는 조선인들이 모두 치료를 요청하였다. 일본과 조선 사람은 비록 생활과 음식 풍습이 다르지만 내상(內傷)과 외감(外感)으로 인해 병에 걸린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히구치(樋口)씨가 그 같고 다름을 잘 살폈기에 치료가 모두 효과를 나타냈다. 조선통신사가 토오토(東都)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치료에 감격하여 선물로 사례하였으니, 히구치씨만의 영예가 아니며 일본 의사의 이름을 높인 일이다. 그리하여 그 치험례를 간행하고자 나에게 와서 서문을 청하였기에 나는 "벼슬에 오른 분께는 으레 환송에 쓸 격려의 글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요."라고 말하고 이처럼 책 머리에 글을 남기노라.

寬延二己巳三月，田中牧齋素行甫記。

간엔(寬延) 2년(기사, 1749) 3월 다나카 보쿠사이 소코호(田中牧齋素行甫) 적다.

自藝州鎌刈贈來書翰

게이슈(藝州) 가마가리(鎌刈)에서 보내온 서한

正騎舡格軍致傷於火藥者，症情危重，非但渠之自分必死，舟中人莫不危之，而專賴足下，往來診病，隨症投藥，以至於起死回生。此外諸舡沙格中病者亦多，而并皆救護，俱得復常，一行上下孰不感歎。三使道到大坂，聞此報，俾即致謝，而因行期卒迫未果，趁即舉行，到鎌刈後，更爲告達，自三行次，各有所送，深致報謝之意，幸足下領之。

정사기선(正使騎船)¹의 격군(格軍)² 중에 화약(火藥)에 다친 이가 증상이 매우 위중하여 그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배 안의 사람들도 모두들 위급하게 여겼으나 귀하에게 맡기자 와서 병을 살피고 증상에 따라 약을 투여하여 기사회생시키셨습니다. 이 외에 여러 배에 타고 있던 사공(沙工)과 격군(格軍)³ 중에도 병자가 많았는데 모두 치료하여 다 회복되었으니 일행이 상하를 막론하고 누군들 감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사(三使)⁴가 오사카(大坂)에 이르러 이 보고를 듣고 감사를 전하려 하였으나 여정의 기한이

축박하여 결국 그리하지 못하였고, 가마가리(鎌刈)에 도착한 뒤 다시 아뢰자
정사·부사·종사관이 차례로 각각 선물을 보내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왔으니 귀하께서 받아주신다면 좋겠습니다.

戊辰七月日上上官,〔子淳 朴僉知 印〕〔季深 玄僉知 印〕〔大年 洪僉知 印〕

무진년 7월 상상관(上上官)〔첨지(僉知) 박자순(朴子淳)⁵ 인(印)〕〔첨지(僉知)
현계심(玄季深)⁶ 인(印)〕〔첨지(僉知) 홍대년(洪大年)⁷ 인(印)〕

浪華醫士樋口道與公

나니와(浪華)의 의사(醫士) 히구치 도요(樋口道與) 공에게

- 正使道所送, 藥果伍立, 大口魚參尾, 扇子貳柄, 黃筆貳柄, 眞墨貳笏。
- 정사(正使)가 보내온 것. 약과(藥果) 5립, 대구어 3마리, 부채 2개, 황필(黃筆) 2
자루, 진묵(眞墨) 2개.
- 副使道所送, 扇子貳柄, 石魚貳束。
- 부사(副使)가 보내온 것. 부채 2개, 조기 2묵음.
- 從事道所送, 扇子貳柄, 石魚貳束
- 종사관(從事官)이 보내온 것. 부채 2개, 조기 2묵음.

1. 정사기선(正使騎船) : 통신사 선단(船團) 가운데 정사(正使)와 수행원들이 탔던 배이다. <
2. 격군(格軍) : 사공(沙工)의 일을 돕는 수부(水夫) 혹은 노(櫓)를 젓는 사람으로, 통신사 일행에서 하급 관리에 속한다. "결군"이라고도 한다. <
3. 사공(沙工)과 격군(格軍) : 오늘날 각각 선장과 선원에 해당한다. <
4. 삼사(三使) : 사신 내에서 사행을 인솔하고 외교 업무를 총괄하던 정사(正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의 3가지 직책을 가리킨다. <
5. 박자순(朴子淳) : 본명은 박상순(朴尙淳), 자순(子淳)은 자(字)이다. <
6. 현계심(玄季深) : 본명은 현덕렬(玄德洌), 계심(季深)은 자(字)이다. <
7. 홍대년(洪大年) : 본명은 홍성귀(洪聖龜), 대년(大年)은 자(字)이다. <

自序

자서

延享四年夏五月，承官命，治韓客於無尻川舡中，韓客始疑本邦醫藥。予爲之辨曰，本邦醫流皆軒岐之徒也，不曾出張劉李朱之藩圍也。藥品選用國產之佳者，凡人參、五味子之類，用貴國之產，地黃、當歸、黃連之類，用本邦之產，其餘品選用中華及諸番之佳者。診察法無他，以望聞問切爲要，其外按腹候背，又考口鼻之氣息，以三部九候分六淫七情之病。藥劑大小，煎法多少，服法緩急，則以貴邦所撰東醫寶鑑爲規矩，然則何疑之有矣。好生之士臨病生猶豫，怠修養必有妨生路云爾。韓客終解疑，請治療，其治驗如左。

엔쿄(延享) 4년 5월 여름에 관명(官命)을 받고 나시시리가와(無尻川)¹에서 배안의 조선 손님을 치료하였습니다. 조선 손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의약(醫藥)을 의심스러워하여, 저는 다음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은 모두 헌원(軒轅)과 기백(岐伯)을 따르고, 장중경(張仲景)、유하간(劉河間)、이동원(李東垣)、주단계(朱丹溪)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약품은 각 나라에서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쓰는데, 인삼(人參)과 오미자(五味子) 등은 귀국에서 나는 것을 쓰고, 지황(地黃)、당귀(當歸)、황련(黃連) 등은 우리나라

라에서 나는 것을 쓰며, 그 외에 약품은 중국과 다른 나라의 좋은 것을 사용합
니다. 진찰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아서, 망진(望診)·문진(聞診)·문진(問診)
·절진(切診)을 핵심으로 삼고, 그 외에는 배와 등을 살피고 또 입과 코의 숨을
관찰하며, 삼부구후(三部九候)로 육음(六淫)과 칠정(七情)의 병을 감별합니
다. 약재의 용량, 달이는 시간, 복용하는 방법은 귀국에서 만든 《동의보감(東
醫寶鑑)》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심이 있겠습니까. 의원(醫
員)이 병을 보아 생명을 유지시켰더라도 수양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삶에 어려
움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 손님들이 결국 의심을 풀고 치료를 청하였다. 당시
치험(治驗)은 다음과 같다.

浪華醫士樋口道與識。

나니와(浪華)의 의사(醫士) 히구치 도요(樋口道與)가 쓰다.

1. 나시시리가와(無尻川) : 오사카(大阪)의 "시리나시가와(尻無川)"를 가리키
는 듯하다. ←

治驗 치험



隨扈下官, 金福才

수읍하관 김복재

朝鮮信使隨扈下官, 金福才, 年三十有八, 主火藥。四月二十六日, 於浪華客館本願寺, 春火藥時, 火猝生而福才頭面胸腹焦爛後, 經十餘日, 於無風川舡中診之。頭面及毛髮共燒爛, 胸腹手臂皮脫水流, 日夜痛悶, 絕飲食, 僅以蕎麥麪, 投白湯服之, 日夜兩三度, 舌縮而不得言語, 惡臭不可近, 六脈虛細, 大便秘結, 小水澁少, 其形狀不堪見, 是火藥猛烈之毒氣攻裏然也。因投外科正宗燒火門四順清涼飲, 每貼十錢, 與二十餘貼, 瘍醫檜林氏加外治。火毒粗退而後, 以黃蓍、當歸、芍藥、芍藥、連翹、黃芩、黃連、生甘草各等分, 與至百有餘貼, 皮肉收斂, 毛髮長, 飲食起居復常。

조선통신사를 수행하던 하관(下官)¹ 김복재(金福才)는 나이 38세로, 화약(火藥) 담당이었다. 4월 26일 나니와(浪華)에서 일행이 머물던 본願寺(本願寺)에서 봄철 화약(火藥) 행사를 하던 중 불이 갑자기 타올라 복재의 머리, 얼굴, 가슴, 배가 불에 타서 문드러졌다. 이 일이 있고 10여 일이 지났을 때 나시시리가와(無風川)²의 배 위에서 그를 진찰하였다. 그의 머리와 얼굴 및 터럭은 모두 타서 문드러졌고, 가슴, 배, 손, 팔뚝의 피부는 벗겨져 진물이 흘러나

왔다. 밤낮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며 음식을 먹지 못하여 겨우 메밀가루 조금을 끓는 물에 타서 밤낮으로 2 - 3번 먹게 할 뿐이었다. 환자는 혀가 오그라들어 말을 할 수 없었고 악취가 나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다. 육맥(六脈)이 모두 허세(虛細)하고 대변이 막혀 나오지 않으며 소변도 시원하지 않고 적게 나왔다. 환자의 형상이 쳐다보기 힘들 지경이었는데, 이것은 화약의 맹렬한 독기가 내부까지 침입한 까닭이었다. 《외과정종(外科正宗)》〈소화문(燒火門)〉에 나오는 사순청량음(四順淸涼飲)을 1첩에 10돈씩 지어 20여 첩을 투여하고, 양의(瘍醫)인 나라바야시(檣林)씨³가 외치법(外治法)을 병행하였다. 화독(火毒)이 대강 빠지고 나서 황기, 당귀, 천궁, 작약, 연교, 황금, 황련, 생감초를 각각 같은 양으로 하여 100여 첩 넘게 주었더니 피부와 살이 아물고 터력이 자라나며 전처럼 음식을 먹고 생활할 수 있었다.

1. 하관(下官) : 통신사 수행 인원은 일본 내의 접대와 의전을 위해 삼사(三使, 정사, 부사, 종사관), 상상관(上上官), 상관(上官), 차관(次官), 중관(中官), 하관(下官)으로 구분되었다. 풍악수(風樂手), 도우장(屠牛匠), 격군(格軍)이 하관에 속하였다. ←

2. 나시시리가와(無尻川) : 오사카(大阪)의 "시리나시가와(尻無川)"를 가리키는 듯하다. ←

3. 양의(瘍醫)인 나라바야시(檣林)씨 : 나라바야시 진산(檣林鎭山, 1648~1711)의 후손으로 보인다. 에도시대 초기 네덜란드 통역관이었던 나라바야시 진산은 외과분야에서 한의학과 난의학을 정출하고 융합한 나라바야시류 외과(檣林流外科)를 창시하였다. 그의 집안은 이후 5대에 걸쳐 외과 치료에 종사하였다. 그는 1690년에 데지마에 온 독일인 의사 엥겔베르트 캠퍼(Engelbert Kaempfer, 1651~1716)에게 의학을 배웠고, 프랑스의 외과 의사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 1510~1590)와 독일인 의사 요하네스 스쿨테투스(Johannes Scultetus, 1595?~1645)의 책을 합쳐 1706년에 《홍이외과종전紅夷外科宗傳》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

† 관련처방

- 四順清涼飲 [사순청량음](#)¹

四順清涼飲赤芍，防風羌活共連翹，當歸甘草山梔等，大黃加上熱俱消。

사순청량음은 적작약、방풍、강활、황련、당귀、감초、산치 등에 대황을 더한 것이니 상초(上焦)의 열을 모두 내린다.

治湯發火燒，熱極逼毒入里，或外被涼水所汲，火毒內攻，致生煩躁，內熱口乾，大便秘實者服。

화상을 치료한다. 열이 극심하여 열독(熱毒)이 몸속으로 들어갔거나 겉에 차가운 물을 뿌려 화독(火毒)이 속으로 침입하여 번조(煩躁)가 생기고 내열(內熱)로 입이 마르며 대변이 막혀 단단해진 경우에 복용한다.

連翹、赤芍、羌活、防風、當歸、山梔、甘草〔各一錢〕，大黃〔炒，二錢〕。上水二鍾，燈心二十根，煎八分，食遠服。

황련、작약、강활、방풍、당귀、산치、감초〔각 1돈〕，대황〔볶은 것, 2돈〕.

이 약재를 물 2종지에 등심 20뿌리와 함께 넣고 8할이 되도록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1. 사순청량음 : 《외과정종(外科正宗)》〈탕소화문(湯潑火燒)〉 제61 [↩](#)



副使卜舁將，鄭興邦

부사집선의 선장 정흥방

副使卜舁將，鄭興邦，年三十有五，形瘦色白性急。有病而數月不愈，因乞治，診之而問其故。彼曰，今歲仲春釜山海發帆頃，鼻孔生腫核，出沒無時，頭額煩熱，兩太陽穴重痛，心下痞塞，時發痛，痰咳上氣，酒食不美，舌上白胎，大便結燥，小便赤澀，六脉洪數。其生平虛弱而疑惑多，在釜山海時，有思慮而不決，後得此病云云。是肝經貯鬱熱，肝火熾盛，脾氣抑鬱而肺爲鬱火所薰蒸之症也。以河間防風通聖散，與三十餘貼，諸症平安，後與補中益氣湯，調理而全愈。

부사집선(副使卜舁)의 선장(舁將) 정흥방(鄭興邦)은 나이 35세로 몸이 마르고 안색이 희며 성격이 급하였다. 병을 얻고 수 개월 동안 낫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부탁하기에 그를 진찰하며 병의 연고를 물었다. 그가 말하기를, 올해 2월에 부산 앞바다에서 출항할 때¹ 콧구멍에 종핵(腫核)이 생겨 정해진 때 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였고, 이마에서 열이 심하게 났으며 양 태양혈이 짓누르듯 아팠다고 한다. 또 명치가 막혀 때때로 아팠고, 가래 섞인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찼으며, 입맛이 없고 혀 위에 백태(白苔)가 생겼으며, 대변이 말라 딱딱하게 나오

고 소변 또한 붉고 시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육맥(六脈)은 홍(洪)·삭(數)하였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허약하고 걱정이 많은데, 부산에서 바다로 출항할 때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뒤로 이 병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간경(肝經)에 울열(鬱熱)이 쌓여 간화(肝火)가 치성한 까닭에 비기(脾氣)는 억울(抑鬱)되고 폐(肺)는 울화(鬱火)로 혼증되어 생겨난 증상이었다. 하간(河間)이 만든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을 30여 첩 주었더니 여러 증상이 평안해졌다. 후에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을 주어 조리하자 완전히 낫게 되었다.

1. : 통신사 선단은 1748년 2월 12일에 부산 앞바다에서 첫 출항을 시도하였으나 역풍 때문에 회항하였고, 16일에 비로소 출항에 성공하였다. <←

† 관련처방

- 防風通聖散 [방풍통성산](#)¹

治諸風熱，或中風不語，暴瘖語聲不出，或洗頭風、破傷風，諸般風搐，小兒驚風積熱，或瘡疹黑陷將死，或傷寒疫癘，不能辨明，或風熱瘡疥，或頭生白屑，或面鼻生紫赤風刺癰疹肺風瘡，或大風癩疾，或風火鬱甚，爲腹滿泄痛，煩渴喘悶，或熱極生風，爲舌強口噤，筋惕肉瞤，或大小瘡腫惡毒，或熱結大小便不通，并解酒傷熱毒。宣明

풍열로 인해 발생한 다음과 같은 온갖 병증을 치료한다. 중풍으로 말을 못하거나 갑자기 병어리가 되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세두풍·파상풍 등 풍사(風邪)로 오그라드는 온갖 병증이나 소아의 경풍과 적열, 또는 창진(瘡疹)이 검게 함몰되어 죽게 생긴 경우, 또는 상한과 역력을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풍열로 생긴 창개(瘡疥), 또는 머리에 생긴 비듬, 또는 얼굴과 코에 생긴 자전풍(紫癰風)·풍자(風刺)·은진(癰疹)·폐풍창(肺風瘡), 또는 대풍창(大風瘡), 또는 풍화(風火)가 심하게 울체되어 배가 그득하고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아프며 갈증이 심하고 숨이 차서 답답한 경우, 또는 심한 열로 풍

이 생겨 혀가 뻗뻗하고 입을 악다물며 힘줄과 살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크고 작은 창종(瘡腫)、악독(惡毒)이 생긴 경우, 또는 열이 났혀 대소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 아울러 주상(酒傷)으로 인한 열독을 풀어준다.《선명》

滑石一錢七分，甘草一錢二分，石膏、黃芩、桔梗各七分，防風、川芎、當歸、赤芍藥、大黃、麻黃、薄荷、連翹、芒硝各四分半，荊芥、白朮、梔子各三分半。右剉，作一貼，入薑五片，水煎服。入門

활석 1돈 7푼, 감초 1돈 2푼, 석고、황금、길경 각 7푼, 방풍、천궁、당귀、적작약、대황、마황、박하、연교、망초 각 4푼 반, 형개、백출、치자 각 3푼 반.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5쪽을 더 넣고 물로 달여 먹는다.《입문》

- 補中益氣湯 보중익기탕²

治勞役太甚，或飲食失節，身熱而煩，自汗倦怠。

일을 너무 많이 하였거나 음식을 적당히 먹지 못하여 몸에 열이 나서 갑갑하고 식은땀이 나며 나른한 경우를 치료한다.

黃芪一錢半，人參、白朮、甘草各一錢，當歸身、陳皮各五分，升麻、柴胡各三分。右剉，作一貼，水煎服。東垣

황기 1돈 반, 인삼、백출、감초 각 1돈, 당귀신、진피 각 5푼, 승마、시호 각 3
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로 달여 먹는다.《동원》

1. 방풍통성산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풍(風) ←

2. 보중익기탕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내상(內傷) ←



正使騎舡中官, 金致永

정사기선의 중관 김치영

正使騎舡中官, 金致永, 年四十有餘。四月下旬, 寒熱往來, 朝輕夕重。絕穀, 僅以蕎麥麪投白湯, 用之日兩三度。經數日然故, 形體昏倦, 而懶言語, 眩暈上氣, 起居不便, 腰腿酸痛, 不能屈伸, 脈浮大無力, 自汗。患人言, 烈風日大醉臥舡樓後得此病云云。予診之曰, 古人所謂酒風是此。致永拍掌嘆曰, 曩於客館, 韓醫某既診之曰, 是酒風病也, 謹修養云, 而赴東都, 卽公之所言, 與韓醫之言, 同一也。深感稱伏乞服藥, 予不忍辭, 以補中益氣湯去當歸加芍藥合四苓散, 與十餘貼。病愈後, 正衣冠謝活命。

정사기선(正使騎舡)의 중관(中官)¹ 김치영(金致永)은 나이가 40여 세이다. 4월 하순에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였는데 아침에는 가벼웠다가 저녁이 되면 심해졌다. 음식을 먹지 못하여 메밀가루를 끓는 물에 풀어 하루에 2 - 3번씩 먹게 할 뿐이었다. 며칠 동안 그러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없이 말하였으며 어지럽고 숨이 차서 생활하기 불편해하였다. 또 허리와 다리가 시큰하게 아파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었고 맥(脈)은 부(浮)·대(大)하고 힘이 없이 뛰었으며 식은땀이 났다. 환자가 말하기를, 강한 바람이 부는 날 심하게 취하여 배 망루

에서 잠을 자고 난 뒤에 이 병에 걸렸다고 한다. 내가 진찰해 보고 "옛사람들이 말한 주풍(酒風)이 이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치영이 손바닥을 치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일전에 객관에서 이미 어떤 조선 의사가 진찰하고는 주풍병이니 조심히 수양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토오토(東都)로 가는 길에 당신의 말을 들으니 조선 의사의 말과 꼭 같습니다." 그가 깊이 감화받아 정중히 복용할 약을 청하니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서 당귀(當歸)를 빼고 작약(芍藥)을 넣은 뒤 사령산(四苓散)과 합방하여 10여 첩을 주었다. 병이 나은 뒤에 의관을 바르게 갖추고 찾아와 목숨을 살려준 것에 감사해하였다.

1. 중관(中官) : 통신사 수행 인원은 일본 내의 접대와 의전을 위해 삼사(三使, 정사·부사·종사관)·상상관(上上官)·상관(上官)·차관(次官)·중관(中官)·하관(下官)으로 구분되었다. 짐선장(卜船將)·배소동(陪小童)·노자(奴子)·소통사(小通事)·도훈도(都訓導)·예단직(禮單直)·청직(廳直)·반전직(盤纏直)·사령(使令)·취수(吹手)·절월봉지(節鉞奉持)·포수(砲手)·도척(刀尺)·사공(沙工)·형명수(形名手)·독수(燻手)·월도수(月刀手)·순시기수(巡視旗手)·영기수(令旗手)·청도기수(淸道旗手)·삼지창수(三枝槍手)·장창수(長槍手)·마상고수(馬上鼓手)·동고수(銅鼓手)·대고수(大鼓手)·삼혈총수(三穴銃手)·세악수(細樂手)·쟁수(錚手)이 중관에 속하였다.



† 관련처방

- **四苓散** [사령산](#)¹

卽五苓散，去肉桂一味也。〔方見寒門〕

오령산에서 육계 한 가지를 뺀 것이다.〔처방은 상한문에 나온다〕

- **五苓散** [오령산](#)²

治太陽證入裏，煩渴而小便不利。

태양증이 속으로 들어가 갈증이 심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치료한다.

澤瀉二錢半，赤茯苓、白朮、猪苓各一錢半，肉桂五分。右爲末，每二錢，白湯調下，或剉作一貼，水煎服。

택사 2돈 반, 적복령, 백출, 저령 각 1돈 반, 육계 5푼. 이 약들을 썰어 2돈씩 끓인 물에 타서 먹거나,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로 달여 먹는다.

1. 사령산 : 《동의보감(東醫寶鑑)》〈내경편(內景篇)〉대변(大便) ←

2. 오령산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한(寒) ←



從事肛官人, 金守昌

종사선의 관인 김수창

從事肛官人, 金守昌, 年三十有餘, 形瘦色黑, 平生嗜酒肉。五月上旬, 痰咳而吐出紫黑塊血, 日夜無度, 脉弦數, 精神盛也。爲鬱火, 與藥數貼, 無守効。又犀角地黃湯加貝母紫菀之類與之, 雖少愈, 吐血不止, 患人倦藥無効。謹按古人每治溢血蓄妄, 必先以下藥下之。因以桃仁承氣湯五貼, 瀉下五六度, 吐血止後, 四物湯加黃連, 解餘熱而復常。

종사선(從事肛)의 관인(官人) 김수창(金守昌)은 나이 30여 세로 몸이 마르고 안색이 검었으며 평소 술과 고기를 즐겨 먹었다. 5월 상순에 밤낮으로 설새 없이 가래 섞인 기침을 하며 검붉은 핏덩어리를 토해냈다. 맥(脈)은 현(弦)、삭(數)하고 정신은 명료했다. 울화(鬱火)로 보고 몇 첩의 약을 주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다시 서각지황탕(犀角地黃湯)에 패모(貝母)、자완(紫菀) 등을 넣어 주자 조금 차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토혈(吐血)이 그치지 않자 환자가 약을 게을리 먹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옛사람들은 맥관(脈管)에서 흘러넘친 혈(血)이 잘못 쌓이거나 함부로 날뛸 때 반드시 먼저

설사시키는 약으로 하법(下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 5첩으로 5 - 6차례 설사시키자 토혈(吐血)이 멈추었고, 그 뒤에 사물탕(四物湯)에 황련(黃連)을 더하여 남은 열을 풀었더니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 관련처방

- 犀角地黄湯 서각지황탕¹

治衄吐血不止，及上焦瘀血，面黃，大便黑，能消化瘀血。

코피나 토혈이 멎지 않는 것과, 상초(上焦)의 어혈로 낫빛이 누렇게 대변 색이 검은 것을 치료한다. 어혈을 잘 없앤다.

生地黄三錢，赤芍藥二錢，犀角鎊、牡丹皮各一錢。右剉，作一貼，水煎服。入門

생지황 3돈, 적작약 2돈, 깎아서 가루 낸 서각·목단피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로 달여 먹는다. 《입문》

- 桃仁承氣湯 도인승기탕²

治血結膀胱，小腹結急，便黑，譫語，漱水，宜此攻之。

어혈(瘀血)이 방광에 맺혀 아랫배가 뭉치고 당기며 대변색이 검고 헛소리하며 물로 입을 자주 행구는 것을 치료할 때는 이 처방으로 어혈을 제거해야 한다.

大黃三錢，桂心、芒硝各二錢，甘草一錢，桃仁留尖十枚。右剉，作一貼，水煎，入芒硝，溫服，以瘀血盡下爲度。丹心

대황 3돈, 계심·망초 각 2돈, 감초 1돈, 뽕족한 끝을 떼지 않은 도인 10개.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로 달인 뒤 망초를 넣고 따뜻할 때 먹는다. 어혈이 다 내려갈 때까지 복용한다. 《단심》

● 四物湯 사물탕³

通治血病.

혈병을 두루 치료한다.

熟地黄、白芍藥、川芎、當歸各一錢二分半。右剉，作一貼，水煎服。局方

숙지황·백작약·천궁·당귀 각 1돈 2푼 반.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로 달여 먹는다. 《국방》

1. 서각지황탕 : 《동의보감(東醫寶鑑)》〈내경편(內景篇)〉혈(血) ←

2. 도인승기탕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한(寒) ←

3. 사물탕 : 《동의보감(東醫寶鑑)》〈내경편(內景篇)〉혈(血) ←

正使騎舡官人, 趙必善

정사기선의 관인 조필선

趙必善, 正使騎舡官人也, 年四十餘。五月上旬於舡上, 發寒熱, 甚如氷炭, 往來無時, 頭痛惡心, 口苦不食, 舌黃胎, 謔言妄語, 六脈弦數。爲傷寒少陽陽明症, 與小柴胡湯合黃連解毒湯六貼, 熱解飲食漸進。口渴自汗, 時時惡風, 以補藥調理, 告平愈。

조필선(趙必善)은 정사기선(正使騎舡)의 관인(官人)으로 나이가 40여 세였다. 5월 상순에 배 위에서 오한과 발열이 발생하였는데, 한기가 들 때는 얼음과 같고 열이 날 때는 숯과 같았으며 오한과 발열이 때 없이 바뀌었다. 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거리며 입이 써서 먹지 못하였다. 혀에는 누런 태가 끼었으며 헛소리를 하였다. 육맥(六脈)은 모두 현(弦)、삭(數)하였다. 상한(傷寒)의 소양양명증(少陽陽明症)으로 보고 소시호탕(小柴胡湯)에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을 합방하여 6첩을 주었더니 열이 풀리고 음식을 점차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목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며 때때로 오풍(惡風)이 있기에 보약(補藥)으로 조리시켰더니 평소와 같이 나왔다고 알려 왔다.



† 관련처방

- 小柴胡湯 소시호탕¹

治少陽病，半表半裏，往來寒熱。能和其內熱，解其外邪，傷寒方之王道也。

소양병에 병사(病邪)가 반표반리에 있어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는 경우를 치료한다. 상한(傷寒)에서 내열(內熱)을 편안하게 하고 외사(外邪)를 풀어주므로 상한방의 왕도이다.

柴胡三錢，黃芩二錢，人參、半夏各一錢，甘草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棗二，水煎服。入門

시호 3돈, 황금 2돈, 인삼·반하 각 1돈, 감초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더 넣고 물로 달여 먹는다. 《입문》

- 黃連解毒湯 황련해독탕²

治傷寒大熱，煩躁不得眠，或差後飲酒復劇者，及一切熱毒。

상한으로 열이 심하여 번조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또는 병이 나은 후 술을 마셔 다시 증상이 심하게 된 경우, 그리고 열독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치료한다.

黃連、黃芩、黃柏、梔子各一錢二分半。右剉，作一貼，水煎服。活人

황련、황금、황백、치자 각 1돈 2푼 반.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물로 달여 먹는다.《활인》

1. 소시호탕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한(寒) ←

2. 황련해독탕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한(寒) ←



副使騎舡官人, 徐重鼎

부사기선의 관인 서중정

徐重鼎, 副使騎舡官人也, 年四旬, 形肥色黑, 性沈重, 嗜酒肉。五月中旬, 患赤痢, 晝夜更衣數十行。彼自朝鮮俗間所傳之用治痢單方藥, 數日無藥効, 却而加病勢。因乞服藥診之, 六脈沈數有力, 裡急後重, 腹中絞痛, 手足沈重, 飲食間嘔吐, 小便赤澁。投不換金正氣散加木香枳榔子枳實姜炒黃連, 與之三劑, 而痢止平復。

서중정(徐重鼎)은 부사기선(副使騎舡)의 관인(官人)으로 나이는 40세이며 몸이 살찌고 안색이 검으며 성격이 침착하고 술과 고기를 좋아했다. 5월 중순에 적리(赤痢)를 앓아 밤낮으로 10여 차례 설사를 하였다. 그는 스스로 조선 민간에서 이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고 전해지는 단방약(單方藥)을 며칠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고 도리어 병세가 심해졌다. 먹을 약을 부탁하기에 진찰해 보니, 육맥(六脈)이 모두 침(沈)·삭(數)하고 힘이 있었다. 또 갑자기 변의가 생기고 설사 후에는 잔변감이 있었으며 배 속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 아울러 손과 발이 무겁게 느껴지고 끼니 사이에 구토(嘔吐)를 하였으며 소변이 붉고 잘

나오지 않았다. 이에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에 목향(木香)·빈랑(檳榔)
·지실(枳實)·생강즙에 볶은 황련(黃連)을 더하여 3제 주었더니 이질이 멈추
고 평소대로 회복되었다.



† 관련처방

- 不換金正氣散 불환금정기산¹

治傷寒陰證，頭痛身疼，或寒熱往來。

상한음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며 더러 오한과 발열이 왕래하는 경우
를 치료한다.

蒼朮二錢，厚朴、陳皮、藿香、半夏、甘草各一錢。右剉，作一貼，入薑三片，
棗二枚，水煎服。入門

창출 2돈, 후박, 진피, 곽향, 반하, 감초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
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더 넣고 물로 달여 먹는다. 《입문》

¹. 불환금정기산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한(寒) ←

副使卜舁中官，劉尙弼

부사집선의 증관 유상필

劉尙弼，副使卜舁中官，年四十有九，形瘦色黑。咳嗽聲重，內熱甚，每咳兩脇下引痛，夜不能安眠。故形體勞，飲食減少，呼吸喘息，大便秘，六脈洪滑或數。與二陳湯加天南星黃連梔子枳實貝母，與數貼全瘳。

유상필(劉尙弼)은 부사집선(副使卜舁)의 증관(中官)으로 나이는 49세이며 몸이 마르고 안색이 검었다. 기침을 하여 목소리가 잠겨있었는데, 안으로 열이 심하였고 기침을 할 때마다 양쪽 옆구리 아래가 당기며 아파서 밤에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먹는 양이 줄었으며 숨을 헐떡거리고 대변을 잘 보지 못하였다. 육맥(六脈)은 홍(洪)、활(滑)하고 더러 삭(數)하였다. 이진탕(二陳湯)에 천남성(天南星)、황련(黃連)、치자(梔子)、지실(枳實)、패모(貝母)를 넣어 몇 첩 주었더니 모두 나았다.

† 관련처방

- 二陳湯 이진탕¹

通治痰飲諸疾，或嘔吐惡心，或頭眩心悸，或發寒熱，或流注作痛。

담음으로 생긴 다음과 같은 온갖 병을 두루 치료한다. 토하거나 메스꺼리는 경우, 머리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 오한과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아픈 경우.

半夏製二錢，橘皮、赤茯苓各一錢，甘草炙五分。右剉，作一貼，薑三片，水煎服。《正傳》

법제한 반하 2돈, 귤피·적복령 각 1돈, 구운 감초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과 함께 물로 달여 먹는다.《정전》

¹. 이진탕 : 《동의보감(東醫寶鑑)》〈내경편(內景篇)〉담음(痰飲) ←

從事舡官人, 金漢傑、朴以平

종사선의 관인 김한걸과 박이평

金漢傑、朴以平, 各從事舡官人也。五月下浣, 於舡上爲漆工, 不勝漆毒發漆疹, 爲腫痒而后潰爛, 苦痛不常, 手足腰腿皆然, 行步艱難。被人扶洗藥膏藥, 共無寸効。因乞治, 以薄荷二斤黃連半斤黃芩黃蘗各十兩水煎, 候冷而洗淨漆瘡而后, 以葑汁調敷三白散, 各兩度悉愈。

김한걸(金漢傑)과 박이평(朴以平)은 모두 종사선(從事舡)의 관인(官人)이다. 5월 하순 무렵 배 위에서 옷칠 작업을 하다가 옷독을 이기지 못하여 옷이 올라 붓고 가렵다가 그 뒤에는 문드러져서 고통이 굉장하였다. 손·발·허리·넓적다리가 모두 그러하여 걷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이 준 씻는 약과 고약(膏藥)을 씻으나 모두 조금의 효과도 없었다. 치료를 청해왔기에, 박하(薄荷) 2근, 황련(黃連) 반 근, 황금(黃芩)·황백(黃蘗) 각 10냥을 물에 달여 식혔다가 칠창(漆瘡)을 씻어 준 다음 삼백산(三白散)을 부추즙에 섞어 각기 2번씩 발라주었더니 모두 나았다.

† 관련처방

- 三白散 [삼백산](#)¹

三白散中用石膏，杭粉輕粉不相饒，調搽必用生韭汁，漆瘡敷上即時消

삼백산 속에 석고를 쓰나 향분·경분과 서로 화합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생부
추즙에 섞어 발라야 하니 칠창(漆瘡) 위에 발라주면 바로 사라진다.

杭粉(一兩)，石膏(三錢)，輕粉(五錢)。各爲末，韭菜汁調敷，紙蓋，如無菜
汁，涼水調敷。

향분(1냥), 석고(3돈), 경분(5돈). 각기 가루를 내어 부추즙에 섞어 바른 뒤
종이로 덮어준다. 부추즙이 없을 때는 찬물에 섞어 바른다.

¹. 삼백산 : 《외과정종(外科正宗)》〈칠창(漆瘡) 제86〉 [↩](#)

從事舡下官, 金千云

종사선의 하관 김천운

金千云, 從事舡下官。發漆疹, 頭面腫, 眼目塞, 反唇, 寒熱往來, 大小便秘
澁, 六脉浮大數, 腰背疼痛。乞藥, 荊防敗毒散一劑煎頓服, 微汗安, 漆疹從
瘳。

김천운(金千云)은 종사선(從事舡)의 하관(下官)이다. 칠창(漆瘡)이 발생하며
머리와 얼굴이 부었고 눈이 떠지지 않았으며 입술이 뒤집혔다. 또 오한(惡寒)
과 발열(發熱)이 번갈아 생기고 대소변이 막혀 잘 나오지 않았다. 육맥(六脈)
은 모두 부(浮)하고 매우 삭(數)하였으며 허리와 등이 아팠다. 치료 약을 청해
왔기에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1제를 달여 단번에 모두 복용시키자 조금 땀
이 나고 증상이 편안해졌으며 칠창(漆瘡)도 따라 나았다.

† 관련처방

- 荊防敗毒散 형방패독산¹

荊防敗毒散人參，羌獨前柴芎桔梗，茯苓枳殼同甘草，寒甚加蔥共得名。

형방패독산은 인삼에 강활、독활、전호、시호、천궁、길경、복령과 지각、감초이니 한(寒)이 심할 때 총백을 더하여 쓰면 모두 효험이 있으리.

治時毒初起，頭眩惡寒，腮、項腫痛，脈浮者服之。

시독(時毒) 초기를 치료한다. 머리가 어지럽고 오한이 들며 뺨과 뒷덜미가 부어 아프고 맥이 부(浮)할 때 복용한다.

荊芥、防風、羌活、獨活、前胡、柴胡、川芎、桔梗、茯苓、枳殼〔各一錢〕，甘草、人參〔各五分〕。姜三片，水二鍾，煎八分，食遠服，寒甚加蔥三枝。

형개、방풍、강활、독활、전호、시호、천궁、길경、복령、지각〔각 1돈〕，감초、인삼〔각 5푼〕，생강 3쪽과 함께 물 2종지에 넣고 8푼이 되도록 달여 빈속에 복용한다. 한(寒)이 심할 때는 총백(蔥白) 3개를 더한다.

1. 형방패독산 : 《외과정종(外科正宗)》〈시독론(時毒論) 제22〉↩



正使騎舡中官，金再齋

정사기선의 중관 김재재

金再齋，正使騎舡中官，年五十有六。五月下旬，感冒風寒，寒熱往來，頭痛，口苦，舌白胎，四肢煩疼，飲食不入，自汗，六脈浮大無力。爲勞力感寒，與補中益氣湯加葛根芍藥數貼，而諸症減半。飲食漸進，以雞肉和粥，連日食之，痰咳上衝，覺煩悶，因投香砂六君子湯加山查子芍藥貝母生姜自然汗¹數劑，完愈

김재재(金再齋)은 정사기선(正使騎舡)의 중관(中官)으로 나이는 56세였다. 5월 하순 풍한(風寒)에 감촉되어 오한(惡寒)과 발열(發熱)이 왕래하고 머리가 아프며 입이 쓰고 혀에 백태(白苔)가 생겼으며 팔다리가 매우 쑤시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식은땀이 났다. 육맥(六脈)은 모두 부(浮)、대(大)하고 힘이 없었다. 힘들게 일한 뒤에 한사(寒邪)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에 갈근(葛根)、작약(芍藥)을 더하여 몇 첩 주자 여러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다. 음식을 점차 먹을 수 있게 되어 닭고기를 넣고 쑨 죽을 매일 먹게 하자 가래 섞인 기침을 하고 기운이 위로 치받아 가슴이 매우 답답하다고 하였다. 이에 향사육군자탕(香砂六君子湯)에 산사자(山查子)、작약(芍藥)、패모(貝母)와 생강(生薑) 짜낸 즙을 넣어 몇 제 주자 모두 나았다.

1. 自然汗 : "自然汁"의 오기로 보고 번역하였다. ←



† 관련처방

- 香砂六君子湯 향사육군자탕¹

治不思飲食，食不化，食後倒飽者，脾虛也。

음식 생각이 없고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아 식후에 헛배가 부른 것을 치료하
니, 비가 허하기 때문이다.

香附子、白朮、白茯苓、半夏、陳皮、白豆蔻、厚朴各一錢，縮砂、人參、木香
、益智仁、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棗二，水煎服。醫鑑

향부자、백출、백복령、반하、진피、백두구、후박 각 1돈, 사인、인삼、목
향、익지인、감초 각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 대추 2개를
더 넣고 물로 달여 먹는다. 《의감》

¹. 향사육군자탕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내상(內傷) <

副使卜舁中官，郭通起

부사집섬의 중관 곽통기

郭通起，副使卜舁中官，年七十餘，形肥色黑。六月上浣，左膝以下至足底，如斗腫起，疼痛啼泣，而坐臥不安，飲食不入，肌膚煩熱，六脈沈滑或數。中焦濕痰，下焦濕尤多也。與除濕湯十貼，足腫半減，以順氣劑調理，告平安。

곽통기(郭通起)는 부사집섬(副使卜舁)의 중관(中官)으로 나이는 70여 세이며 몸이 살찌고 안색이 검었다. 6월 상순경에 왼쪽 무릎 아래에서 발바닥까지 국자 모양으로 부어올라 소리 내 울 정도로 아팠다. 그런 뒤로 항상 편안하지 못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였고 피부에서 심한 열이 났으며 육맥(六脈)은 침(沈)·활(滑)하고 더러 삭(數)하였다. 중초(中焦)에 습담(濕痰)이 찬 데다 하초(下焦)의 습(濕) 역시 많은 경우였다. 제습탕(除濕湯) 10첩을 주자 다리의 붓기가 반쯤 빠졌고, 순기(順氣)시키는 약으로 조리시키자 평소처럼 편안해졌다고 알려왔다.

† 관련처방

- 除濕湯 제습탕¹

治中濕，滿身重着。

중습으로 온몸이 무거운 경우를 치료한다.

蒼朮、厚朴、半夏各一錢半，藿香、陳皮各七分半，甘草五分。右剉，作一貼，
入薑七片，棗二枚，水煎服。得效

창출、후박、반하 각 1돈 반, 곽향、진피 각 7푼 반, 감초 5푼. 이 약들을 썰어
1첩으로 하여 생강 7쪽, 대추 2개를 더 넣고 물로 달여 먹는다. 《득효》

¹. 제습탕 : 《동의보감(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습(濕) ↩

從事騎舡官人, 金順平

종사기선의 관인 김순평

金順平, 從事騎舡官人也, 年三十九, 形肥色黑有鬱滯。六月上旬, 腰背痛, 間四肢柔弱無力, 咳嗽, 時時吐出塊血, 脉細數。以當歸芍藥黃連貝母黃芩半夏茯苓各等分爲劑, 與三劑, 諸症愈。吐血未止, 以前方煎, 臨服加童便一卮, 服五貼, 復常。

김순평(金順平)은 종사기선(從事騎舡)의 관인(官人)으로 나이는 39세이며 몸이 살찌고 안색이 검었으며 울체가 있었다. 6월 상순경에 허리와 등이 아프고 간혹 팔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기침을 하고 때때로 핏덩어리를 토해냈다. 맥은 세(細)、삭(數)하였다. 당귀(當歸)、작약(芍藥)、황련(黃連)、패모(貝母)、황금(黃芩)、반하(半夏)、복령(茯苓)을 각기 같은 양씩 1제로 만들어 3제 주자 모든 증상이 나았다. 토혈(吐血)이 아직 그치지 않았기에 앞의 처방을 달이고 복용하기 직전에 동변(童便) 1술잔을 넣어 5첩 복용시키자 평소처럼 회복하였다.

韓人患血症者, 好必服童便, 其餘亦動服童便是習俗然歟。

조선사람들은 혈증(血症)을 앓으면 동변(童便)을 즐겨 먹는데, 다른 증상일 때도 동변(童便)을 먹으려는 것은 풍속이 그러해서인가.



騎舡舡將, 姜弘晉

정사기선의 선장 강홍진

姜弘晉, 正使騎舡舡將也, 年七十有餘, 形瘦色白性急。六月下旬, 口中爛, 發熱面赤, 大便秘, 無他苦。弘晉曰, 今舟中服藥人多不, 自由煎煮云云。因桔梗黃連黃芩連翹大黃各等分, 裹布令含之。經兩三日, 全瘳。

강홍진(姜弘晉)은 정사기선(正使騎舡)의 선장(舡將)으로 나이는 70여 세이며 몸이 마르고 안색이 희며 성격이 급하였다. 6월 하순 입 안이 헐고 열이 나며 얼굴이 붉고 대변이 막혀 잘 나오지 않았으나 다른 증상은 없었다. 강홍진은 지금 배 안에 약을 먹는 사람이 많으니 스스로 약을 달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길경(桔梗)·황련(黃連)·황금(黃芩)·연교(連翹)·대황(大黃)을 같은 양으로 하여 천에 싸서 주고 복용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2-3일이 지나 모두 나았다.

從事卜舁官人, 李靑萬

종사집섬의 관인 이청만

從事卜舁官人, 李靑萬之病錄曰, 氣息喘促, 間有胃痛腹痛, 徃或有四肢無力。

診之六脈沈滑。形肥性沈重。既七月朔日診察, 依歸期迫, 不與藥。

종사집섬(從事卜舁)의 관인(官人) 이청만(李靑萬)의 질병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는 숨을 헐떡거리고 간혹 가슴과 배가 아팠으며 종종 팔다리에 힘이 없었다. 진찰해 보니 육맥(六脈)이 침(沈)、활(滑)하였다. 몸은 살찐으며 성격은 침착하였다. 이미 7월 초하루에 진찰하였으나 돌아갈 날이 닳쳤기 때문에 약을 주지는 못했다.

疑問 문답



書翰

서한

攝陽隱醫 樋口道與淳叟 奉書。

세츠요(攝陽)의 재야 의원(醫員) 히구치 도요(樋口道與) 준소(淳叟)가 보내는
편지

朝鮮國醫院官活菴趙國手，雖未得接芝眉，敢修尺素以候，台範海程萬里，動止佳勝，正堪忻忭矣。〔僕〕曾勤刀圭之業，仍其所疑者，今幸欲遇明鑑正之，疑問一件書。尤近年人參葉者，從貴國來，〔僕〕等未識其功能，仍考中華書無所載，〔僕〕顧非其可用者，則不可採收也乎。貴國之民，採收而交易者，當有所堪用而然也。因數試之治，表症之効者多，而補裡之効者劣矣。以人參價貴，而貧乏者不能多服，〔僕〕爲渠用此，既盡數斤也。然以前賢未論之有所首鼠焉，貴國醫家，亦有用之乎。幸憐〔僕〕愚悃，勿吝教論，伏祈垂鑑。

조선 의관(醫官) 활암(活菴) 국수(國手) 조숭수(趙崇壽) 귀하를 비록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감히 편지를 써서 안부를 여쭙습니다. 귀하께서 만 리 바닷길을 건너는 동안 건강하시다니 정말 기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직업으로 의술에 힘써 오며 의심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식견이 높으신 분

과 만나 질정하고자 궁금한 점 한 가지를 써봅니다. 근래에 인삼(人蔘)의 잎은 조선으로부터 들어온 것들인데, 저희는 그 효능을 알지 못하여 중국의 책을 찾아보았지만 적혀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인삼 잎을 채집하여 교역하는 것은 분명 쓰임이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몇 차례 시험 삼아 치료해 보니 표증(表證)에 효과를 본 경우는 많았지만 속을 보하는데 효과는 적었습니다. 인삼의 가치가 귀하여 가난한 사람은 많이 복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용한 양이 이미 수 근(斤)에 이릅니다. 아마 선현들께서 말하지 않은 것 중에 지극히 일부일테지만 조선의 의가들 또한 이것을 사용하는지요. 저의 간곡함을 어여뵈 여겨 가르침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지혜로운 답변 주시기를 엿드려 기원합니다.

答書

답서

奉覆攝陽樋口公案下

세츠요(攝陽)의 히구치(樋口)공 서한에 대한 답장

未有合簪之契，荷此投牘之眷，致意丁寧，再三披玩，曷勝忻感，〔僕〕海陸貧程，得免顛沛之患，是所幸也。示諭謹悉槩，參葉之用，非古也。邇自數十年來，弊邦鄉曲亦多用之。〔僕〕亦嘗因俗用之，而其味辛多甘小，其氣溫而輕浮，如產後感冒者，假其辛甘而散之，賴其參力，而不致重虛，感風者感寒者，和用於解表之劑，而有効焉，至於補益之方，亦未敢試之。弟補瀉在乎氣味，辛甘輕飄之藥，豈有補虛之功也。然而以其有根液之上湊，故酷猶肉桂之桂枝發中亦有補，固不可比論於蘇葛之專一於解表也。其可用者，產後發熱，勞發感冒等症，其不可用者，虛損之病，若不顧其虛實，一槩試之，殆妄矣。愚見如斯，足下以爲如何，萬萬可期，歸路得接清儀，略此不具，惟希統照。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니 정성이 대단하여 두 번 세 번 읽고 나자 감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육지와 섬을 오가는 동안 귀하의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삼가 대강을 다 보여드리자

면, 인삼 잎을 사용한 것은 옛날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골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저 또한 일찍이 세속의 방법대로 사용해 보았는데, 그 미(味)를 보니 신미(辛味)가 많고 감미(甘味)가 적었으며, 그 기(氣)는 따뜻하면서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감모(感冒)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신감(辛甘)한 미(味)를 빌려 표사(表邪)를 흩어내고 인삼의 힘에 의지하여 거듭 허(虛)해지지 않도록 하였고, 풍(風)이나 한(寒)에 감모된 경우에도 해표(解表)시키는 약재와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보았습니다. 보익(補益)하는 처방에서는 아직 감히 시험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보사는 기미(氣味)에 달려 있으니, 미(味)가 신감(辛甘)하고 기(氣)가 가볍고 날랜 인삼잎이 어찌 허증(虛證)을 보하는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의 진액이 위로 올라와 모였기 때문에 육계(肉桂) 나무의 계지(桂枝)가 발산(發散)시키는 가운데 보(補)하는 효과가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롯이 해표(解表)시키는 소엽(蘇葉)이나 갈근(葛根)과는 실로 견주어 논의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출산 후의 발열증, 허로로 인한 감모의 증상 등이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허손(虛損)으로 병이 생긴 경우이니, 만약 병증의 허실(虛實)을 살피지 않고 대충 시험 삼아 사용한다면 위태로울 것입니다. 저의 견해는 이와 같은데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일 지 모르지만 돌아가는 길에 뵙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니 모두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趙崇壽活菴拜。

조승수(趙崇壽) 활암(活菴)이 절함



筆談

필담

〔僕〕氏樋口，名淳叟，字道與，號生寧，浪華之醫也。奉活菴趙君，足下今隨使臺，來日東，旋程往還，動止平安，曷勝忻躍。先呈疑問一條，親蒙慈教，感與謝互至矣。今日幸得接手儀，〔僕〕有所曾疑，欲今正之博雅之士。

저의 성(性)은 히구치(樋口)이고 이름은 준소(淳叟)이며, 자는 도요(道與)이고 호는 세이네이(生寧)로 나니와(浪華)의 의원(醫員)입니다. 활암(活菴) 조(趙) 선생님을 뵙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행(使行)을 좇아 일본에 오시고 여행길에 오르시어 경도(京都)에 도착하셨으니 어찌 기쁨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의문 한 가지를 서한으로 보내자 자상한 가르침으로 직접 우매함을 일깨우시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다행히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있었으니 제가 여태 의심스러워했던 것을 이제 학식 높으신 선비로부터 지도받고자 합니다.

小兒科虎口三關法在諸書，而經文無所考，貴國亦用之否，乞教論。

소아과의 호구삼관법(虎口三關法)은 여러 서적에 있으나 경문(經文)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신 나라에서도 이것을 사용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活菴答。小兒第二指〔男左女右〕，第一節風關，有脉見則病輕，第二節氣關，有脉見則病重尚可治，第三節命關，有脉見則必死不治。見紅紋病輕，傷寒驚風外感輕病，見青紋病重，驚風中寒中惡重病，見黑紋疳病勞症內傷極重死症。大盖紅黃色紋見者病易安，青紫色紋者病重，紫黑紋色者死。自風關紋出直至於命關者，亦重必死，然若紅黃紋者不死。

활암(活菴)이 답하였다. 소아의 두 번째 손가락(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첫 번째 마디는 풍관(風關)으로, 이곳에 맥(脉)이 드러나면 병이 가벼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 마디는 기관(氣關)으로, 이곳에 맥(脉)이 드러나면 병이 위중하나 치료할 수는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마디는 명관(命關)으로, 이곳에 맥(脉)이 드러나면 반드시 죽을 병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삼관(三關)에 붉은 무늬가 나타나면 병이 가벼우니, 상한(傷寒)、경풍(驚風)、외감(外感)처럼 가벼운 병인 경우입니다. 푸른 무늬가 나타나면 병이 위중하니, 경풍(驚風)、중한(中寒)、중악(中惡)처럼 위중한 병인 경우입니다. 검은 무늬가 나타나면 감병(疳病)、노증(勞症)、내상(內傷)처럼 매우 위중하여 죽을 수 있는 병인 경우입니다. 대체로 붉거나 누런 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는 병이 쉽게 안정되고, 푸르거나 자줏빛 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는 병이 위중하며, 자줏빛이나 검은 무

늑이 나타나는 경우는 죽을병입니다. 풍관(風關)에서 무늑이 나와서 곧바로 명관(命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위중하여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붉고 누런 무늑라면 죽지 않습니다.

生寧問。貴國藥一貼分量如何。

세이네이(生寧)가 물었다. 당신 나라에서 1첩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活菴答。壯牢者一貼重一兩一二錢作一貼，虛弱者七八錢。

활암(活菴)이 답하였다. 건장한 사람에게는 1냥 1 - 2돈 정도를 한 첵으로 하고, 허약한 사람에게는 7 - 8돈으로 합니다.

生寧問。煎煮水分量如何。

세이네이(生寧)가 물었다. 달이는 물의 분량은 어떻게 합니까?

活菴答。藥一兩重水一升煎至五合。

활암(活菴)이 답하였다. 약(藥) 1냥을 물 1되로 5홉이 되도록 달입니다.

生寧問。人參葉製法如何。

세이네이(生寧)가 물었다. 인삼잎의 법제(法製) 방법은 어떠합니까?

活菴答。生用。

활암(活菴)이 답하였다. 날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樋口道與藏板

히구치 도요(樋口道與) 장판(藏板)



해제

개요

《한객치험(韓客治驗)》은 일본의 히구치 준소(樋口淳叟)가 간엔(寬延) 2년(기사, 1749) 간행한 의학 관련서이다. 현재 교토대학(京都大學) 후지카와문고(富士川文庫) 등에 소장되어 있다.

저자

저자 히구치 준소(樋口淳叟)는 일본 에도(江戸) 중기의 의원(醫員)으로, 자(字)는 도요(道與), 호(號)는 세이네이(生寧), 출신지는 오키(奥)의 츠가루(津輕)이다. 성년이 된 뒤로 나니와(浪華)에서 전업 의원(醫員)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748년 관명(官命)을 받고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조선통신사 일행을 치료하고 아울러 조선의 양의(良醫) 조숭수(趙崇壽)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치료 기록과 문답 내용을 정리하여 간행한 책이 바로 《한객치험(韓客治驗)》이다.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목판본으로서 불분권(不分卷) 1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은 서언(緒言)과 본문(本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언에는 3가지 글이 실려 있다. 먼저 다나카 보쿠사이 소코호(田中牧齋素行甫)의 "한객치험서(韓客治驗序)", 조선통신사로부터 받은 치료에 대한 감사의 편지인 "게이슈(藝州) 가마가리(鎌刈)에서 보내온 서한 [自藝州鎌刈贈來書翰], 그리고 제목은 없으나 치료 배경을 설명한 저자 자신의 글이 그것이다.

본문은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나니와(浪華)에서 조선통신사 일행을 치료한 의안(醫案)이고, 후반부는 통신사로 와 있던 양의(良醫) 조송수(趙崇壽)와 주고받은 의사(醫事) 문답(問答)이다.

치료 의안에는 14건의 의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의안은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환자의 이름과 직책, 주요 병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의안은 환자의 체형, 얼굴색, 특이사항(성격 등), 발병 시점이나 발병 계기, 주증(主證)과 부증(副證), 맥상(脈象), 의사 소견, 투여 약제, 경과 등의 내용을 순서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형식에 맞추어 정리되어 있어 분량이 간략한데도 당시의 질병과 치료 과정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	--

성명	직책	주요 병증
김복재(金福才)	수읍하관(隨扈下官)	화상(火傷)
정흥방(鄭興邦)	부사집선의 선장 [副使卜 舡將]	코에 생긴 종핵 (腫核)
김치영(金致永)	정사기선의 중관 [騎舡中 官]	주풍(酒風)
김수창(金守昌)	종사선의 관인 [從事舡官 人]	토혈(吐血)
조필선(趙必善)	정사기선의 관인 [正使騎 舡官人]	상한(傷寒)
서중정(徐重鼎)	부사기선의 관인 [副使騎 舡官人]	적리(赤痢)
유상필(劉尙弼)	부사집선의 중관 [副使卜 舡中官]	해수(咳嗽)
김한걸(金漢傑) · 박이평 (朴以平)	종사선의 관인 [各從事舡 官人]	칠창(漆瘡)

김천운(金千云)	종사선의 하관 [從事艇下 官]	칠창(漆瘡)
김재재(金再齋)	정사기선의 중관 [正使騎 艇中官]	감모풍한(感冒 風寒)
곽통기(郭通起)	부사짐섬의 중관 [副使卜 艇中官]	각기(脚氣)
김순평(金順平)	종사기선의 관인 [從事騎 艇官人]	혈증(血症)
강홍진(姜弘晉)	정사기선의 선장 [騎艇艇 將]	구창(口瘡) 등
이청만(李靑萬)	종사짐섬의 관인 [從事卜 艇官人]	천식(喘息)

후반부의 문답은 인삼잎 [人蔘葉] 의 쓰임에 대한 문답, 소아과의 호구삼관법(虎口三關法)에 대한 문답, 약재 달이는 방법에 대한 문답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

이 책은 조선통신사 사행 동안 이루어진 사건과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와 교류한 일본인들이 필담 내용을 정리하여 간행하는 일이 많았다. 이 책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만들어져 간행되었다. 이 책의 배경이 되는 1748년 제10차 통신사행은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의 습직(襲職)을 축하하기 위해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 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 종사관(從事官) 조명채(曹命采)가 이끈 사행이었다. 이들은 오사카까지 해로(海路)를 이용하였고, 오사카부터 목적지인 에도(江戸)까지는 육로(陸路)로 이동하였다. 사신 일행이 육로를 통해 이동하고 업무를 보는 동안 배를 운항하였던 뱃사람들은 오사카에 체류하였다. 책의 저자는 관명(官命)에 따라 이 기간(대략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에 질병이 생긴 조선인들을 치료하였고 그 내력을 남겨 이처럼 책으로 간행하였다.

이국땅에서 질병에 걸린 조선인들은 치료를 간절히 필요로 하였으나 일행의 치료를 맡은 조선인 의원들은 에도로 떠났기 때문에 오사카에 남은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일본인 의원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 의원에게 선뜻 몸을 내어 주지는 않았다. 저자는 "조선 손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의약(醫藥)을 의심스러워하였다 [韓客始疑本邦醫藥]."고 적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일본의 의학이 조선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 그는 일본의 의학이 "모두 헌원(軒轅)과 기백(岐伯)을 따르고, 장중경(張仲景)、유하간(劉河間)、이동원(李東垣)、주단계(朱丹溪)의 틀에서 벗어난 적

이 없으며 [本邦醫流皆軒岐之徒也 , 不曾出張劉李朱之藩圍也] ", 약재 역시 일본 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나는 좋은 것을 골라 쓰며 [藥品選用國產之佳者] ", 진단의 방법도 동일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탕전의 요령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만든 《동의보감(東醫寶鑑)》을 기준으로 삼는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책 내적으로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 외적으로는 당시 일본인이 생각했던 양국 의학의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보여 준다.

환자들이 호소한 병증은 다양한 편인데, 뱃길을 통한 사행인데다 환자들이 대부분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를 보수하면서 생긴 칠창(漆瘡)이나 세찬 바닷바람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주풍(酒風)·상한(傷寒)·감모풍한(感冒風寒) 등이 눈에 띈다. 책의 치험례는 짧지만 요점을 충실히 담고 있어 당시 환자의 상태와 저자의 대응 그리고 치료 경과를 알기에 충분하다. 일본인이 조선인을 치료하고 남긴 치료 기록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소한 사료이다.

의학 문답은 상대적으로 간략한 편이다. 특기할 내용은 인삼잎 [人蔘葉] 에 대한 것이다. 인삼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잘 드러나기도 하거니와, 당시 조선에서 인삼잎을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그 방법이 일본에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문답에 언급되어있듯 인삼잎은 이전에는 약재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인삼이 영약으로 간주되면서 그 잎 역시 약재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듯하다. 일본에서 인삼잎

의 사용은 조선 인삼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히구치 준소는 "근래에 인삼(人蔘)의 잎은 조선으로부터 들어온 것 [近年人蔘葉者, 從貴國來] "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삼잎의 쓰임을 연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자 양의 조승수에서 이를 물었다. 조승수는 "인삼 잎을 사용한 것은 옛날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參葉之用, 非古也。 玆自數十年來, 弊邦鄉曲亦多用之] "라고 하여 조선에서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님을 설명하였고, "출산 후의 발열증, 허로로 인한 감모의 증상 [產後發熱, 勞發感冒等症] "과 같이 허증을 끼고 발산시켜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조선의 의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당시의 정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부록1 : 용어설명

한객치험의 배경이 된 제10차 조선통신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다.

사행(使行)

제10차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는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대규모 외교 사절단이다. 조선 전기에도 파견되었으나 조선 후기 에도 막부에 파견한 사절단을 주로 지칭한다. 조선 후기 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에 걸쳐 모두 12차례 파견되었다.

영조 23년(정묘, 1747)부터 이듬해인 영조 24년(무진, 1748)에 걸쳐 이루어진 제10차 조선통신사는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제9대 쇼군(將軍)이 된 도쿠가와 이에시게(徳川家重, 1712-1760)의 습직(襲職)을 축하하기 위한 사행으로, 무진사행(戊辰使行), 정묘사행(丁卯使行) 등으로 불린다.

당시 사행은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 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 종사관(從事官) 조명채(曹命采)를 필두로 하여, 제술관(製述官) 박경행(朴敬行), 서기(書記) 이봉환(李鳳煥)·유후(柳逅)·이명계(李明啓), 역관(譯官) 박재창(朴再昌)·한후원(韓後瑗)·김도남(金圖南), 사자관(寫字官) 김천수(金天秀)·현문구(玄文龜), 화원(畫員) 이성린(李聖麟)·최북(崔北), 양의(良醫) 조송수(趙崇壽), 의원(醫員) 조덕조(趙德祚)·김덕륜(金德崙) 등이 수행하였다.

총 475명으로 구성된 당시 사행은 해로와 육로 구분된다. 1747년 11월 28일 한양에서 출발한 일행은 이듬해 2월 부산에 도착하였고 2월 12일에 일본으로 출항하여 해로를 통해 4월 21일에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그 이후에는 육로를 따라 5월 21일 에도에 도착하여 6월에 국서를 전달하였다. 일정을 마친 일행은 윤7월 12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30일에 한양으로 돌아와 일정을 마쳤다.

당시 사행에 대한 기록은 4편 정도가 현존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사관 조명채(曹命采)가 쓴 《봉사일본시견문록(奉使日本時見聞錄)》과 당시 자제군관(子弟軍官)의 자격으로 수행한 정사 홍계희(洪啓禧)의 아들 홍경해(洪景海, 1725-1759)가 쓴 《수사일록(隨槎日錄)》이다. 이 외에 작자 미상의 《일본일기(日本日記)》와 《일관고요(日觀考要)》가 전한다.

주요 사건

통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가는 도중, 쓰시마(對馬)의 와니우라(鰐浦)에 머물던 2월 21일 새벽 1시 즈음에 부사선(副使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인하여 3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삼 72근(斤)을 비롯하여 많은 예단이 소실되었다. 쓰시마를 떠나 오사카로 가기 위해 부사(副使)는 정사(正使)의 짐선(卜船)을 기선(騎船)으로 삼고 일본에서 배 한 척을 빌려 짐선으로 삼았다.

통신사선(通信使船)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야 했다. 이를 위해 선단을 조직하였는데 선단은 정사(正使)의 기선(騎船)과 짐선(卜船), 부사(副使)의 기선과 짐선, 종사관(從事官)의 기선과 짐선 등 6척으로 구성되었다. 기선에는 각각 정사·부사·종사관과 그들의 수행원이 탑승하였고, 짐선에는 나머지 인원이 탑승하고 화물을 실었다. 1607년 기록에 따르면 큰 배인 상선(上船)은 사공(沙工) 4명과 격군(格軍) 100명이, 이보다 작은 배인 하선(下船)에는 사공 3명과 격군 80명, 가장 작은 배인 소선(小船)에는 사공 2명과 격군 10명이 배를 몰았다고 한다.

주요 수행원

통신사 수행 인원은 삼사(三使, 정사·부사·종사관)·상상관(上上官)·상관(上官)·차관(次官)·중관(中官)·하관(下官)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접대와 의전을 위한 분류였다. 삼사(三使)는 사행의 인솔자이자 외교 업무의 책임자로 정사·부사·종사관이 이에 해당한다. 삼사 다음 직위인 상상관(上上官)에는 당상 왜학역관(堂上倭學譯官) 3명이 속하였다. 그 다음 상관(上官)에는 상통사(上通事)·제술관(製述官)·양 의(良醫)·차상통사(次上通事)·압물관(押物官)·사자관(寫字官)·의원(醫員)·화원(畫員)·자제군관(子弟軍官)·군관(軍官)·서기(書記)·별파진(別破陣)이 속하였다. 차관(次官)에는 마상재(馬上才)·전악(典樂)·이마(理馬)·반당(伴尙)·선장(船將)이 속하였다. 중관(中官)에는 짐선장(卜船將)·배소동(陪小童)·노자(奴子)·소통사(小通事)·도훈도(都訓導)·예단직(禮單直)·청직(廳直)·반전직(盤纏直)·사령(使令)·취수(吹手)·절월봉지(節鉞奉持)·포수(砲手)·도척(刀尺)·사공(沙工)·형명수(形名手)·독수(纛手)·월도수(月刀手)·순시기수(巡視旗手)·영기수(令旗手)·청도기수(淸道旗手)·삼지창수(三枝槍手)·장창수(長槍手)·마상고수(馬上鼓手)·동고수(銅鼓手)·대고수(大鼓手)·삼혈총수(三穴銃手)·세악수(細樂手)·쟁수(錚手)이 속하였다. 마지막 하관(下官)에는 풍악수(風樂手)·도우장(屠牛匠)·격군(格軍)이 속하였다.

삼사(三使)는 정사·부사·종사관을 가리키며 조선 시대 사행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중심 직책이었다. 정사(正使)는 사행원의 최고 책임자이자 외교사절의 대표자였다. 통신사에서 정사는 1인으로, 정3품부터 정5품 사이의 품계에서 임명되었고 당상관(堂上官)인 이조참의(吏曹參議)의 직함을 임시로 내렸다. 부사(副使)는 정사(正使)를 보좌하는 직책이다. 통신사에서 부사는 1인으로, 당하관(堂下官) 정3품인 전한(典翰)의 직함을 임시로 내렸다.

종사관(從事官)은 정사와 부사 다음의 직책으로 종사(從事)라고도 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서장관(書狀官)이라 불렀다. 통신사에서 종사관은 1인으로, 정5품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의 직함을 임시로 내렸다. 문관 가운데 글솜씨가 좋은 이를 선발하여 사행 일정에 따라 하루 일과를 기록하게 하고 귀국 후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일행을 감찰하는 역할도 맡았다.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

홍계희(洪啓禧, 1703-1771)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澹窩),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영조 13년(1737)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이 되었고, 이어 교리(敎理)·수찬(修撰)·공조참의(工曹參議)·승지(承旨)를 역임하였다. 통신사 사행을 다녀온 후에 형조참판(刑曹參判)·병조판서(兵曹判書)·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이조판서(吏曹判書)·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등을 지

났다. 저서로는 《삼운성휘(三韻聲彙)》가 있다. 또 고려 말부터 당시까지 사신이나 포로·표류 등의 이유로 일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의 각종 기행문을 모아 《해행총재(海行摠載)》를 편찬하였다.

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

남태기(南泰耆, 1699-1763)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낙수(洛叟), 호는 죽리(竹裏),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영조 8년(1732)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注書)·전적(典籍)·병조좌랑(兵曹佐郎)·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고, 북도병마평사감(北道兵馬評事監)이 되어 북관민을 위해 북관편의(北關便宜) 13조를 올렸다. 통신사 사행을 다녀온 후에 동부승지(同副承旨)·의주부윤(宜州府尹)·대사간(大司諫)·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냈다. 《속대전(續大典)》을 수찬하였고, 통신사 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상기(槎上記)》를 집필하였으며, 문집인 《죽리집(竹裏集)》을 남겼다.

종사관(從事官) 조명채(曹命采)

조명채(曹命采, 1700-1764)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주경(疇卿), 호는 난재(蘭齋) 또는 난곡(蘭谷),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영조 12년(1736) 통덕랑(通德郎)으로 정시 문과에 급제하였고, 정언(正言)·지평(持平)·승지(承旨)·판윤(判尹)·이조 참판(吏曹參判)·대사헌(大司憲) 등을 역임하였다. 통신사 사행을 다녀온 후에 예조 참판(禮曹參判)을 지냈다. 통신사에서의 경험을 일기체로 적은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을 저술하였다.

수행 의원(醫員)과 양의(良醫)

의원(醫員)은 사행원들의 질병 치료를 담당하였으며 보통 2인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전의감(典醫監)과惠民서(惠民署)에서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선발되었다. 사행원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행 의원 2인에게 약 43종의 약재를 지참하도록 하였다. 지참 약재는 다음과 같다. 강활(羌活)·당귀(當歸)·대황(大黃)·길경(桔梗)·마황(麻黃)·건모과(乾木瓜)·맥문동(麥門冬)·목통(木通)·진애(陳艾)·박하(薄荷)·반하(半夏)·방풍(防風)·백렴(白朮)·백복령(白茯苓)·백작약(白芍藥)·백지(白芷)·백출(白朮)·백편두(白扁豆)·산약(山藥)·상백피(桑白皮)·생지황(生地黃)·세신(細辛)·소엽(蘇葉)·승마(升麻)·시호(柴胡)·오미자(五味子)·옥리인(郁李仁)·인동초(忍冬草)·적복령(赤茯苓)·적작약(赤芍藥)·전호(前胡)·차

전자(車前子)、창출(蒼朮)、천궁(川芎)、천남성(天南星)、천문동(天門冬)、택사(澤瀉)、향유(香薷)、형개(荊芥)、황금(黃芩)、황백(黃柏)、황기(黃芪)、후박(厚朴).

그러나 공식적인 지참 약재는 1종당 5-7근(斤) 정도로 사행원 전체를 치료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시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어진 약재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소합향원(蘇合香元)、주사안신환(朱砂安神丸)、포룡환(抱龍丸) 등 상비약을 개인적으로 구비하였다.

사행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원(醫員)과 달리 양의(良醫)는 조선 의술에 정통하고 임상 경험이 많은 의원을 보내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임시직이다. 양의의 파견은 조선에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일본의 요청이 있을 때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대부분의 통신사 사행에는 양의 1인이 함께 수행하였다. 양의의 선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나이가 많고 의학에 정통하며 임상에 뛰어난 자를 요청하였다. 양의(良醫) 1인과 의원(醫員) 2인은 상관(上官)에 속해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양의를 제술관(製述官)과 동일한 예우로 대하였다. 또한 조선통신사 사행 기간에 이루어진 의약(醫藥) 관련 필담도 주로 양의와 이루어졌다. 제10차 통신사 사행에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의약 필담을 통해 만들어진 서적은 다음과 같다.

--	--	--	--	--	--

간행 년	서명	저자 : 주요참여 자	필담장 소	출판 지	판 종
1748	對麗筆語	菅道伯 : 趙崇壽	江戸	江戸	刊 本
1748	鳴海驛唱和	佐藤養活 : 趙崇壽	名古屋	-	筆 寫
1748	班荊閑談	直海龍 : 趙崇壽	京都	京都	刊 本
1748	桑韓醫問答	河村春恒 : 趙崇壽	江戸	江戸	刊 本
1748	桑韓鏘鏗錄	百田安宅 : 趙崇壽	大阪	京都	刊 本
1748	仙槎筆談	橘元勳 : 趙崇壽	江戸	江戸	刊 本
1748	兩東筆語	丹羽貞機 : 趙崇壽	江戸	-	筆 寫

1748	朝鮮筆談	野呂實夫：趙崇壽	江戸	-	筆寫
1748	朝鮮筆談	河村春恒：趙崇壽	江戸	-	筆寫
1748	韓客筆譚	橘元勳：趙崇壽	江戸	-	筆寫
1748	韓槎墳篋集	合田徳：趙崇壽	江戸	江戸	刊本
1748	和韓唱和附錄	田中常悅：趙崇壽	大阪	大阪	刊本
1749	韓客治驗	樋口淳叟：趙崇壽	大阪	大阪	刊本

양익(良醫) 조승수(趙崇壽)

조승수(趙崇壽, 1714-?)는 조선 후기의 의원(醫員)으로 자는 경로(敬老)·송재(崇哉), 호는 활암(活庵),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의원(醫員) 조덕조(趙德祚)

조덕조(趙德祚, 1709-?)는 조선 후기의 의원(醫員)으로 자는 성재(聖哉), 호는 송재(松齋)이다. 사행 당시 관직은 주부(主簿)였다.

의원(醫員) 김덕륜(金德崙)

김덕륜(金德崙, 1703-?)는 조선 후기의 의원(醫員)으로 자는 자윤(子潤)·자상(子相), 호는 탐현(探玄), 본관은 개성(開城)이다. 영조 3년(1727) 정미(丁未) 증광시(增廣試) 역과(譯科)에 합격하였고 왜학(倭學)을 전공하였으며, 의약동참(議藥同參)·군수(郡守)·주부(主簿)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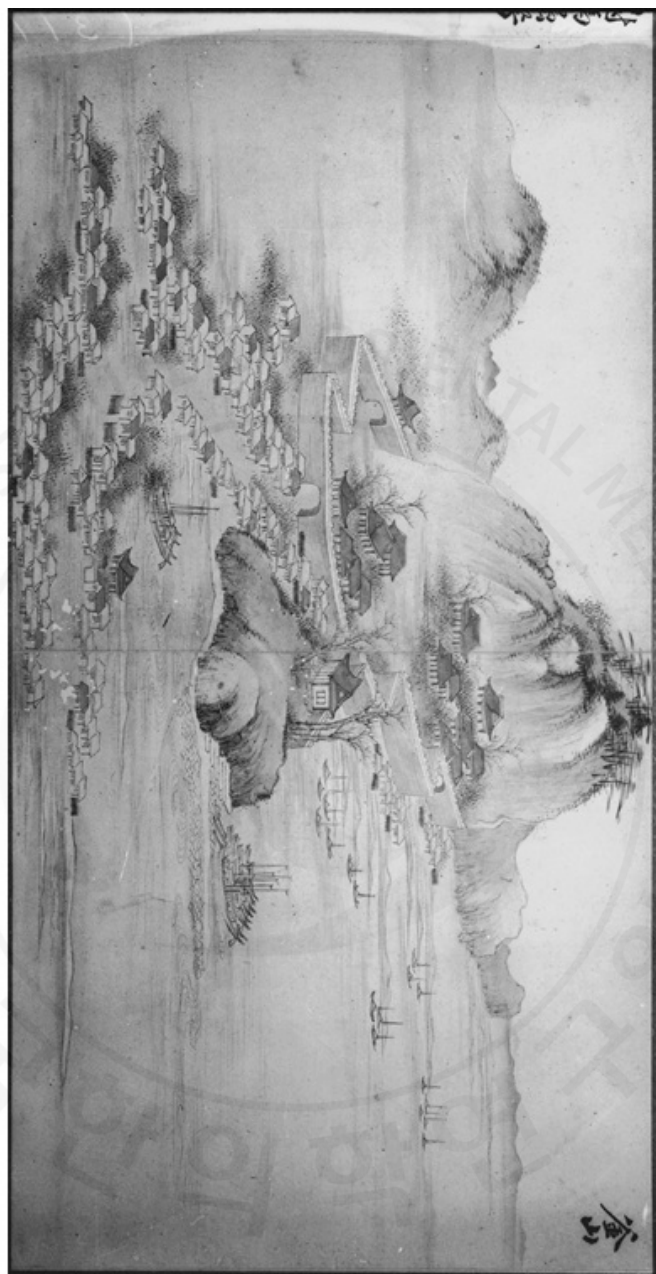
부록2 : 도록

한객치험 및 그 배경이 된 제10차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도록을 간략히 제시한다.

-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 도화서(圖書署) 화원(畫員) 이성린(李聖麟, 1718-1777)이 제10차 조선통신사를 수행하면서 그 여정을 그림으로 담은 연작이다. 조선의 부산에서 일본의 에도까지 모두 30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부록에는 조선통신사의 항해가 시작된 부산(釜山), 통신사가 돌아가는 길에 히구치 준소(樋口淳叟)에게 감사의 서신과 답례품을 보냈던 가마가리(鎌刈, 浦刈), 치료가 이루어졌던 오사카(大坂, 大阪), 통신사의 최종 목적지인 에도(江戸)를 실었다. 본 작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조선통신사행렬도. 일본에서 제10차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그린 그림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졌다. 기록용으로 만들어 진듯 한 이 그림에는 인물의 표정이나 개인의 소지품이 매우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 수행 관원들의 이름과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 끝에는 외교활동 내역을 적어 놓았다. 본 부록에는 히구치 준소(樋口淳叟)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낸 첨지(僉知) 일행, 그리고 정사(正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 마지막으로 양의(良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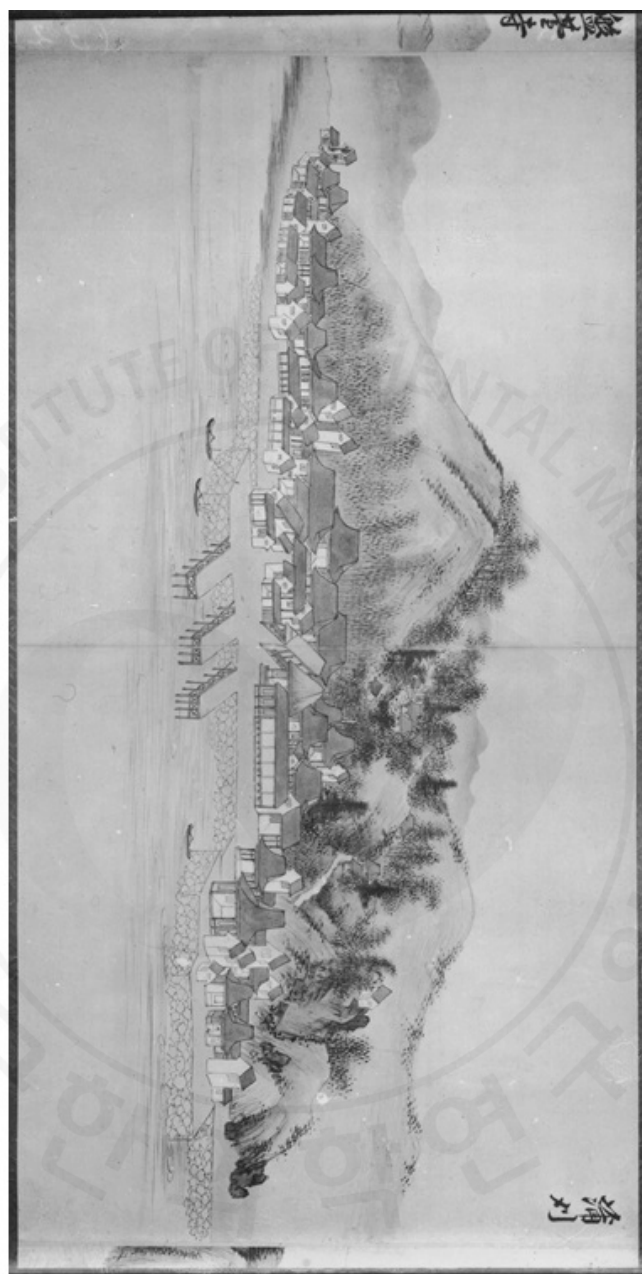
의 모습을 실었다. 아울러 본문에 등장하는 정사와 수행원들을 태웠던 정사기선(正使騎船) 및 닻·노·방향타와 같은 부속품을 묘사한 그림도 함께 실었다. 본 작품은 현재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에 소장되어 있다.

- 조선통신사 선도 및 선단도. 본 부록에는 일본의 화가 이시자키 유시(石崎融思, 1768-1846)가 그린 조선통신사선의 모습, 조선통신사선을 복원 재현한 모습, 작가 미상으로 조선통신사 선단이 일본에 입항하는 모습을 그린 조선통신사선단도를 아울러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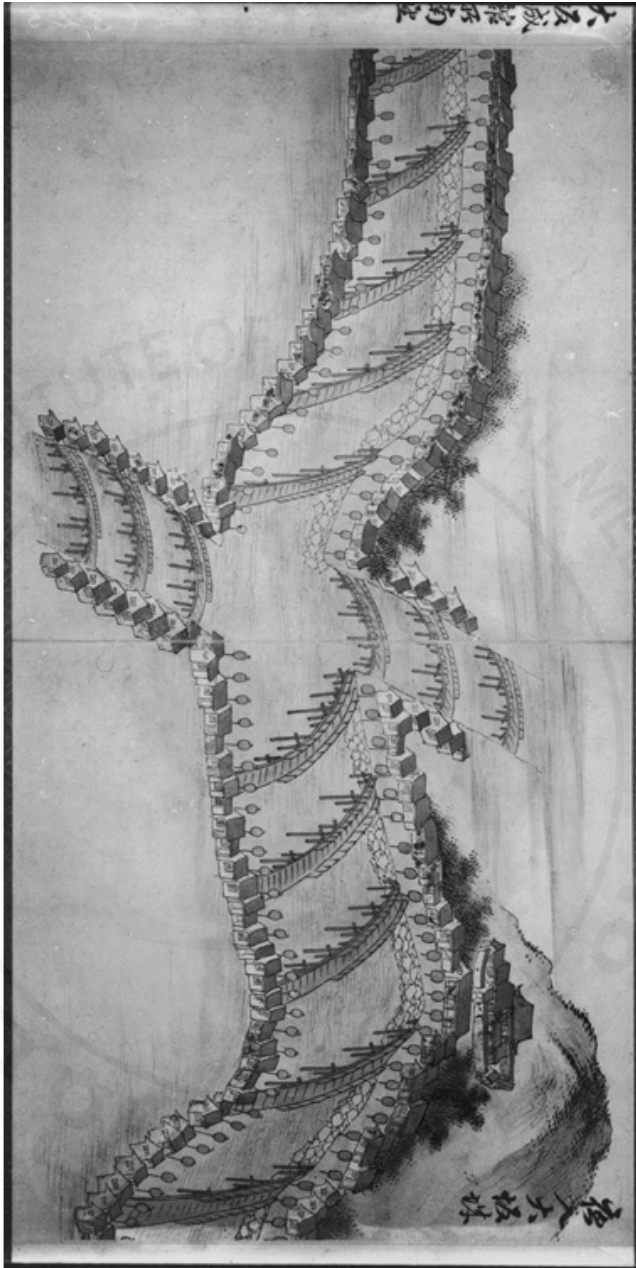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 부산(釜山)

©국립중앙박물관



사로승구도(沙路勝區圖) 카마가리(浦刈)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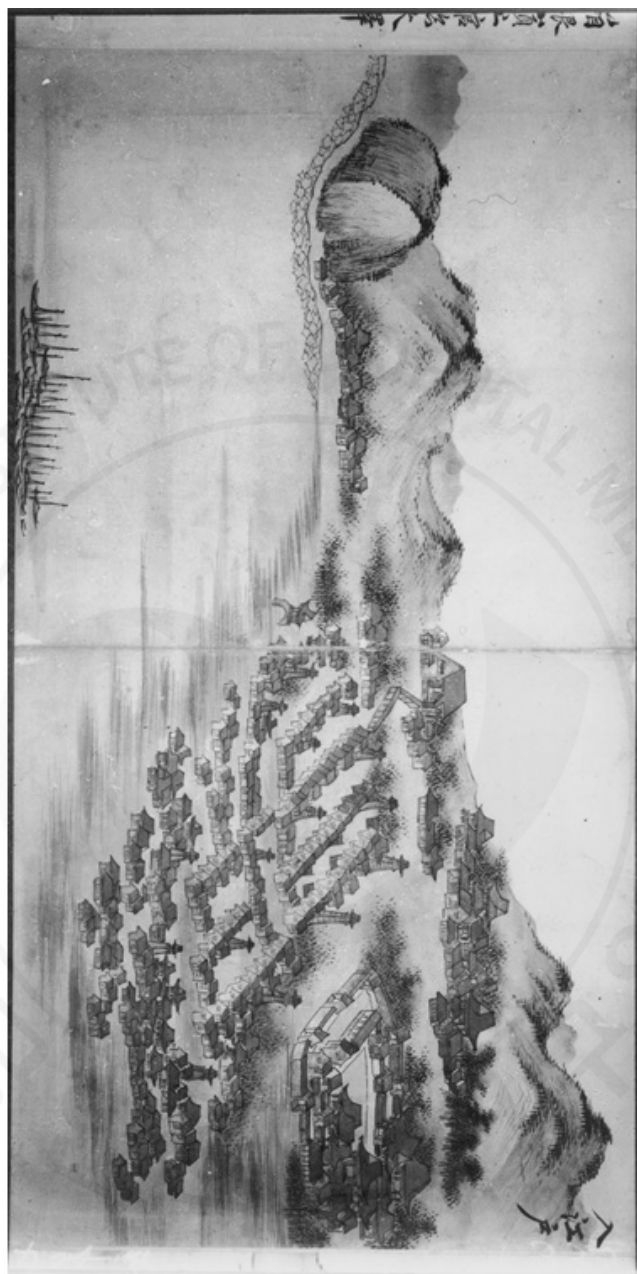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 오사카성(大坂城)
©국립중앙박물관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 오사카성(大坂城)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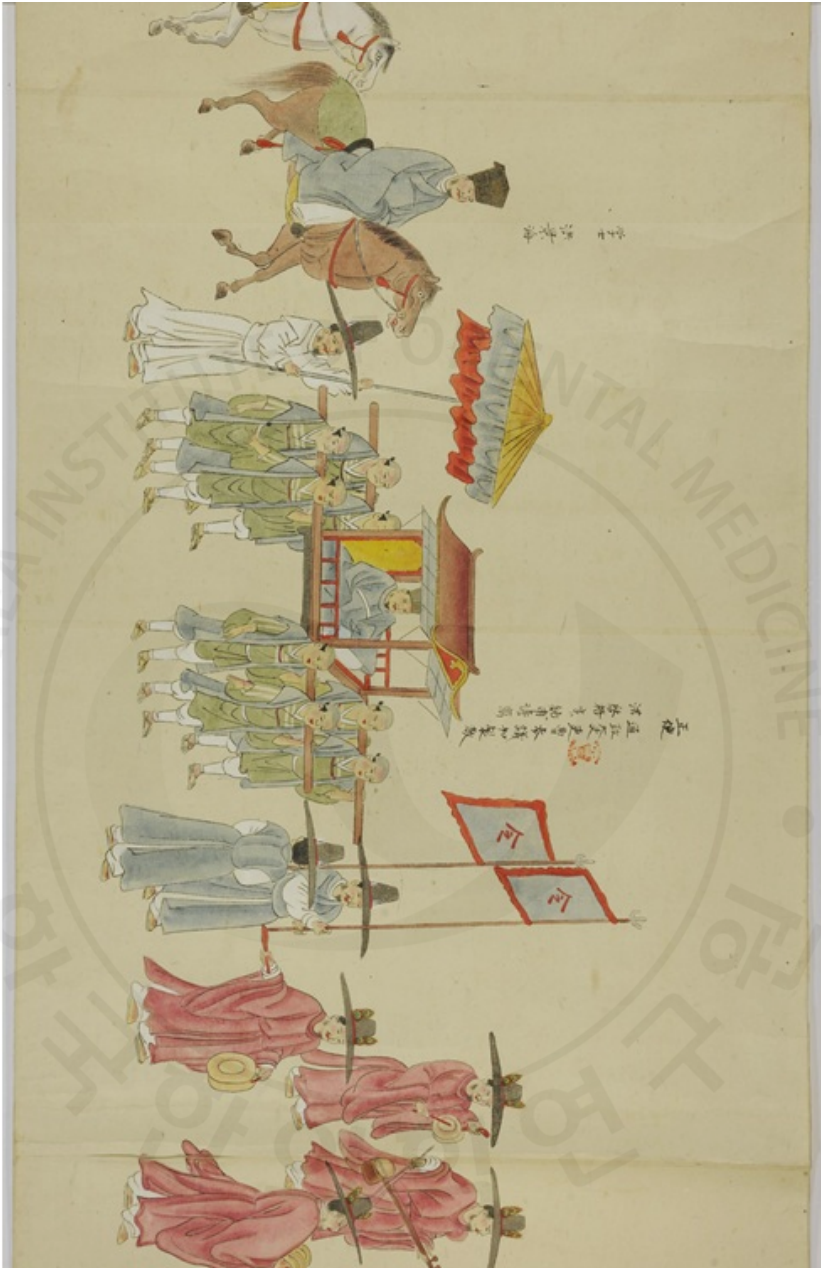


사로승구도(槎路勝區圖) 에도(江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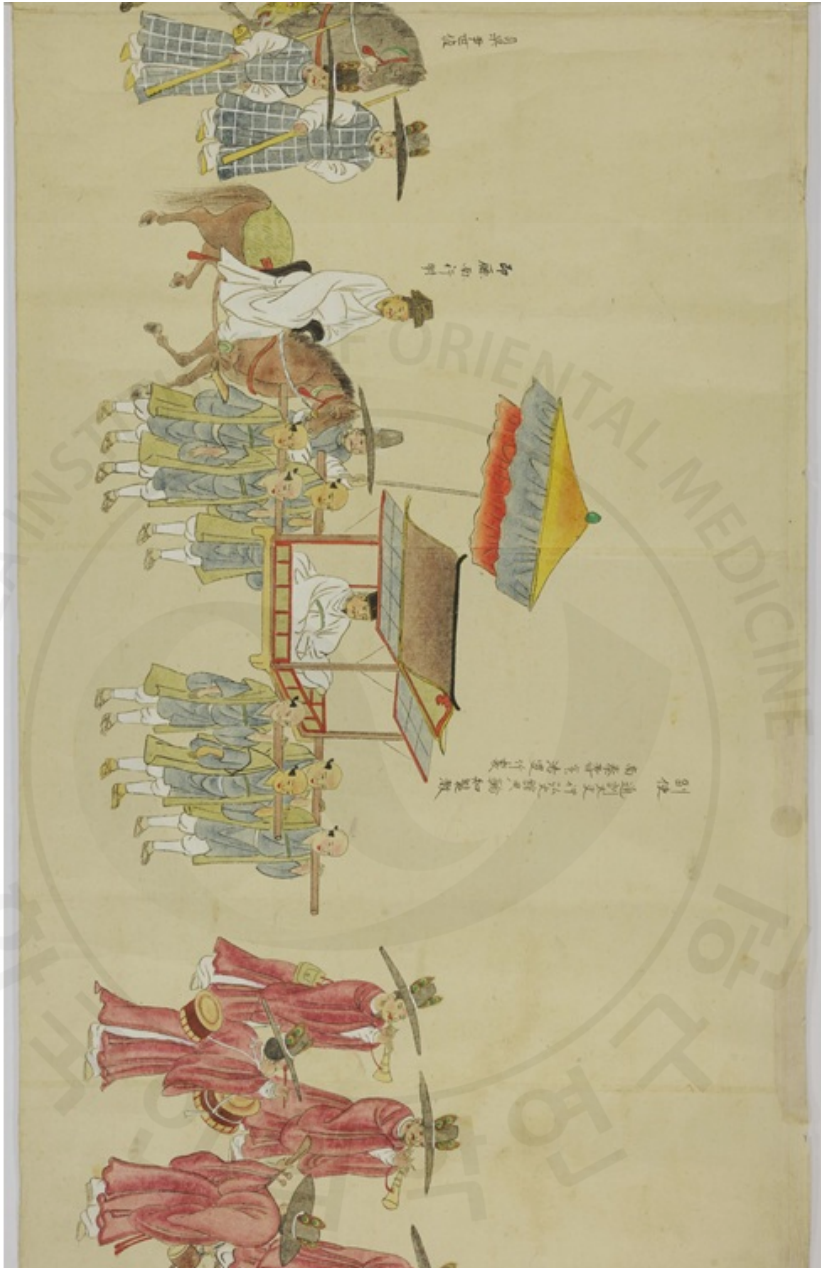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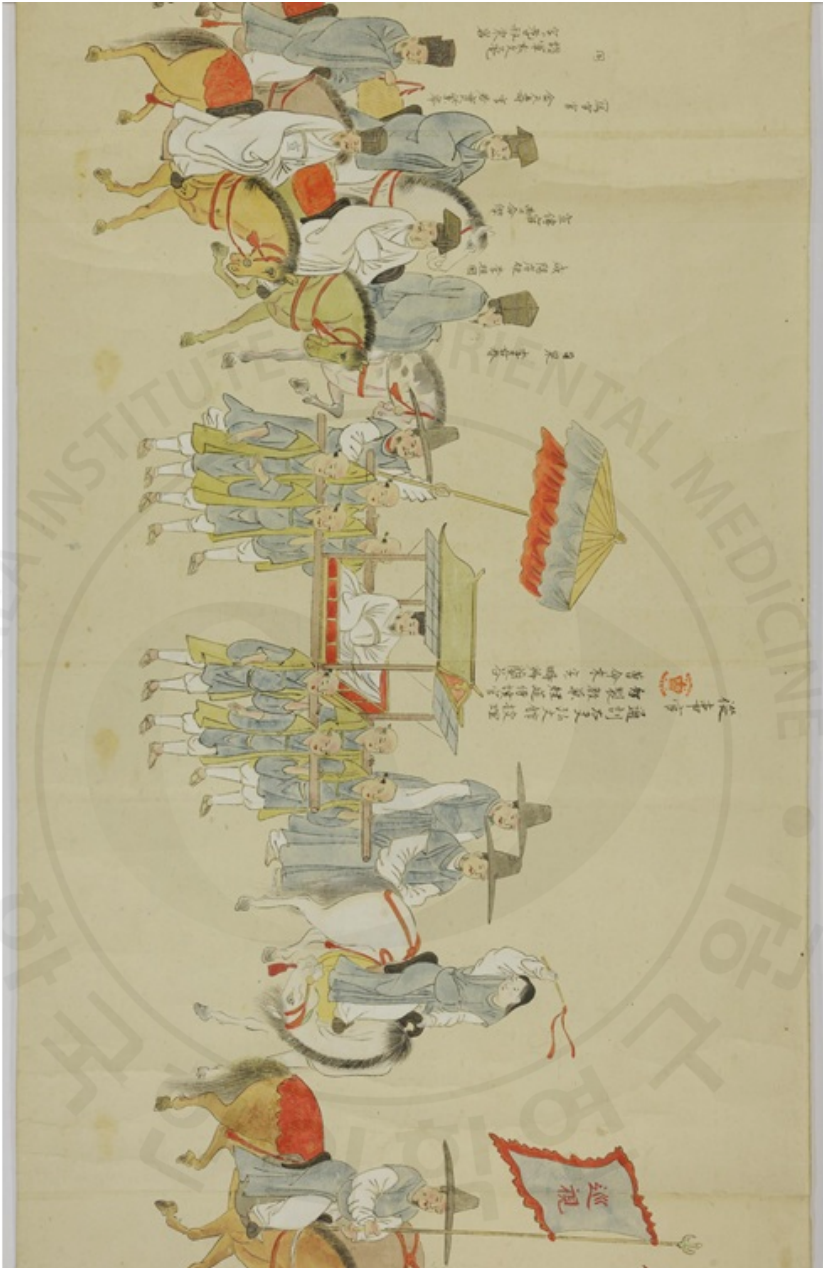
조선통신사행렬도 첨지(첨지) 일행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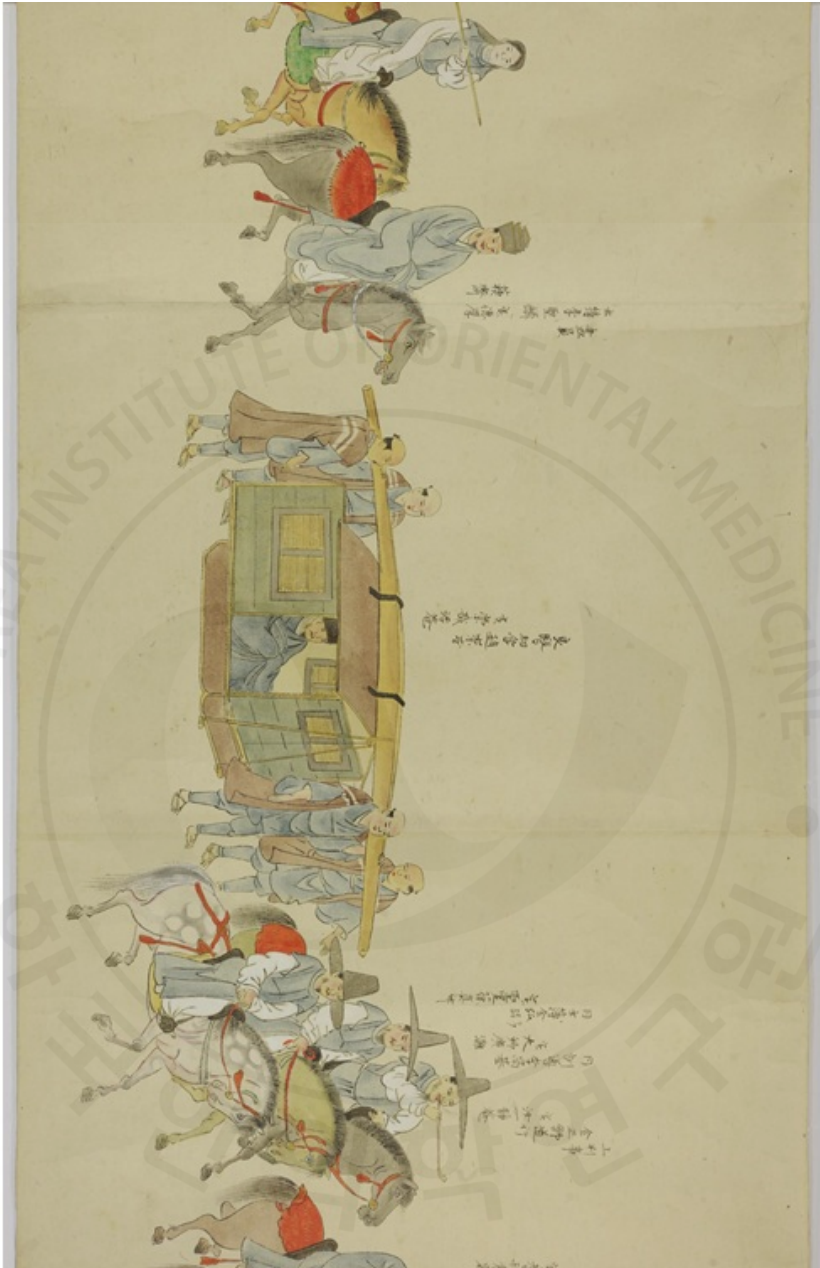
조선통신사행렬도 정사(正使)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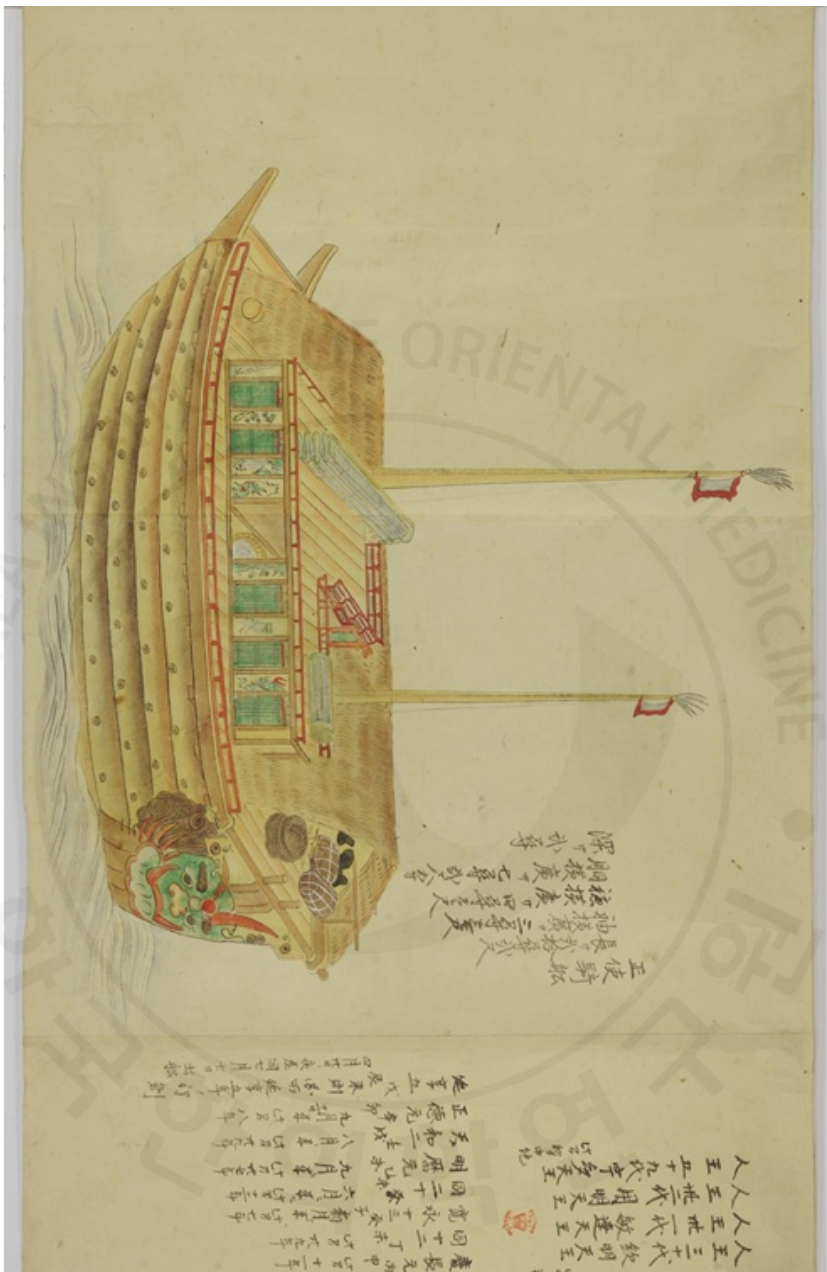
조선통신사행렬도 부사(副使)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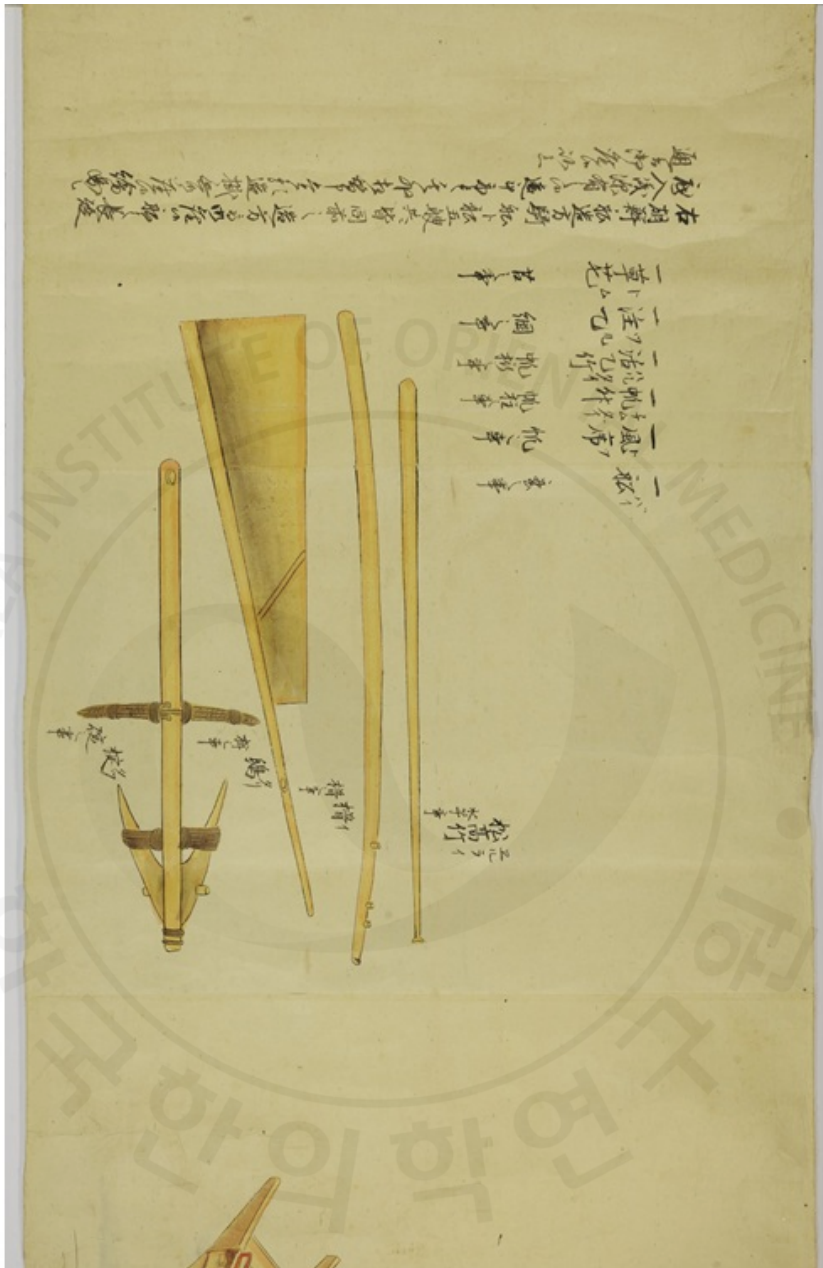
조선통신사행렬도 종사관(從事官)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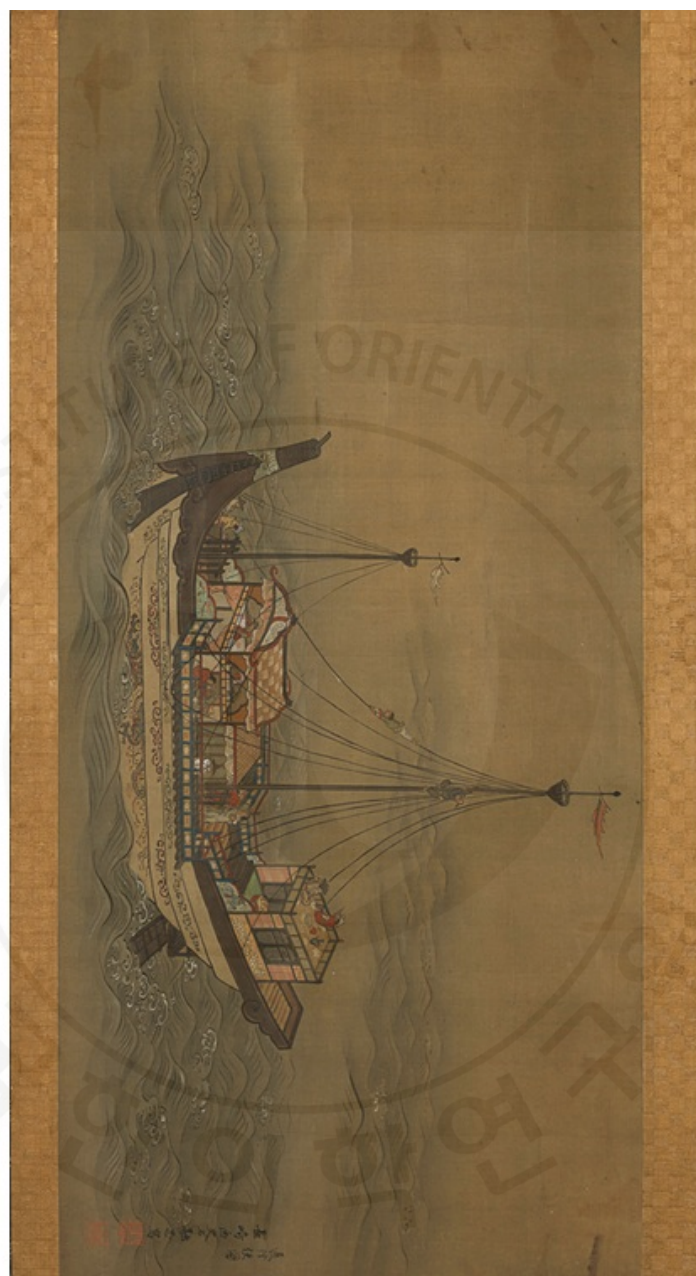
조선통신사행렬도 양의(良醫)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조선통신사행렬도 정사기선(正使騎船)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조선통신사행렬도 정사기선(正使騎船) 부속품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조선통신선도
©국립해양박물관

조선동신사선 복원
©국립해양박물관





조선통신사선단도
©국립해양박물관

참고문헌

국역 해제 부록 작성을 위해 다음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 구지현. 1748년 조선 양의(良醫)와 일본 관의(官醫)와의 필담 출현과 서적담화 양상. 열상고전연구. 2013;38:369-399.
- 권혜은. 朝鮮後期 《槎路勝區圖卷》의 作者와 畫風에 관한 연구. 美術史學研究. 2008;26:67-104.
- 김형태. 통신사 의원필담(醫員筆談)에 구현된 조일(朝日) 의원의 성향 연구. 열상고전연구. 2012;35:333-362.
- 정장식. 1748年 通信使와 日本에 대한 認識 變化. 人文科學論集. 2005;31:5-30.
- 함정식. 조선통신사 의학교류 중 일본 의가의 치험 사례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2009;9:127-160.
- 함정식. 무진사행 의학문답 및 치험 사례 기록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010;30:83-125.
-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2009;32:103-132.

- 홍순재. 한국의 전통선박 변천과정과 조선통신사선 재현에 관한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2019;27:107-186.
- 김시덕. 일본인 이야기2. 메디치미디어. 2020.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공식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공식홈페이지. <https://www.knmm.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BZ-210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The British Museum. The British Museum Official Site. <https://www.britishmuseum.org/>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교감기를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㉞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 기호 및 표기가 사용되었다.
 - ㉞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서의 작은 글씨
 - **임의 제목** : 원서에는 없으나 내용 이해를 위해 삽입한 제목

- 주석 : 주석에 해당되는 문구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한객치험 韓客治驗

원저자 : 히구치 준소 樋口淳叟

국역·해제 : 오준호

발행인 : 이진용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21년 12월 10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 (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2021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디자인·이미지·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 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